

미국의 부흥과 회복 위한 다민족 연합기도회 열려

이 땅을 고쳐 주소서 … 민족은 달라도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뜨겁게 기도해



다민족기도회가 11월 29일(주일) 오후 4시부터 8시 30분까지 애나하임 컨벤션 센터에서 'Heal Our Land(이 땅을 고쳐 주소서)'란 주제로 열렸다.

미국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 다민족들이 연합해 주님 앞에 부르짖었다. 지난 2011년 11월 11일로즈볼과 2014년 11월 11일 버라이즌아워극장에서 열렸던 다민족기도회가 올해는 한인교회 주도로 지난달 29일(주일) 애나하임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다.

추수감사절 연휴 마지막 날임에도 불구하고 약 3,500여 명(주최측 집계)이 참석했으며 절대 다수가 한인들이었으나 중국인 등 출신 국가가 다양한 동양인들, 백인, 흑인, 라티노들이 함께 'Heal Our Land(이 땅을 고쳐 주소서)'라는 주제 아래 기도했다.

오후 4시 30분 시작된 기도회는 한기홍 목사의 개회 메시지를 시작해 회개, 교회와 가정, 학교와 문화, 국가 지도자, 사회 정의와 변화, 부흥과 선교라는 소주제 아래 각 주제를 3명의 한인 목사와 1~2명의 다민족 지도자가 인도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기도회 중

간에 JAMA 설립자 김춘근 박사가 짧게 메시지를 전했으며 강순영 목사가 기도 인도자들을 소개했다. KCCC와 더락교회, 파이어크루세일, 등이 찬양을 인도했다. 모든 행사는 송정명 목사의 축도로 8시 30분을 넘겨 끝났다.

이 기도회 중 국가 지도자를 위

한 기도시간에는 선출직 정치인인 영 김 주 허원의원, 최석호 열바인 시장, 스티브 황보 라팔마 시의원, 스콧 보이츠 레이포레스트 시장, 유수연 ABC교육위원이 직접 참석해 짧게 메시지를 전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도 했다.

김준형 기자

“미성대학교 D.Min 개설 감사예배 및 후원의 밤 개최”

열방을 향한 세계선교 위해
최선 다하는 신학교 될 것

미성대학교(총장 류종길 박사) D.Min 개설 감사예배 및 제 11회 후원의 밤 행사가 지난 11월 29일(주일) 오후 4시부터 이 대학 채플실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1부 예배, 2부 비전나눔, 3부 이 대학 상담학과 디렉터 김혜란 교수에 대한 명예신학박사 학위 수여식, 그리고 4부는 간단한 저녁식사와 함께 교제 시간으로 각각 나뉘어 진행됐다.

이상혁 목사(재무이사)의 사회로 시작된 1부예배는 마하나임(뉴송교회) 찬양, 안충기 목사(이사, 임마누엘헬로우십교회) 기도, 조성호 목

사(총무이사, 비이셀리아교회) 성경봉독, 전국여전도연합회(지휘 도서관장 원덕영 목사) 합창, 장석진 목사(미주성결교회 증경총회장) 설교, 이기홍 목사(성광회장)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장석진 목사는 '당신의 옥합을 깨뜨려라'(마가14:3-9) 주제의 말씀선포를 통해 "옥합은 가장 귀하고 비싼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가장 사모하고 존경하는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은 주님을 향한 신앙고백과도 같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였느냐?'는 주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며 "가장 귀한 옥합을 주님께 드리는 심정으로

후원에 참여, 미성대학이 세계선교의 요람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자"고 했다.

김시온 목사(행정처장) 사회로 시작된 2부 비전 나눔 시간에는 뉴송교회 남성중창단의 합창, 유동선 목사(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 동영상 축하 메세지, 황의정 박사(대학원장) 학교현황 소개, 동영상 학생 간증, 김광렬 목사(이사장) 후원안내 및 약정을 위한 기도, 박미자매의 바이올린 연주, 다니엘 뉴먼 박사(아주사파시피대학교) 축사, 조종근 목사(미주성결교회 총회장) 격려사, 총장 류종길 박사의 내빈 및 후원자 소개 순으로 진행됐다.

[관련기사 2면에 계속]

“남가주교협 최혁 회장, 결국 사임”

憂慮가 現實로…그래도 하나돼야



최혁 회장

남가주기독교교협의회 제45대 최혁 회장이 2일 언론사 배포 보도자료를 통해 12월 2일 부로 전격 사임한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는 주안예교회(담임 최혁 목사) 공식 이메일을 통해 발송됐다. 이로써 남가주교협은 차기 회장 선출을 두고 또 다시 혼란이 예

상된다. 하지만 누가 회장이 되더라도 다음 회기를 정상적으로 이끌어가기에는 이미 상처와 부담이 너무 크다. 분열도 우려된다.

최 회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임기 동안 협력을 아끼지 않은 증경회장단, 임원진, 교계 선후배 목사들에게 진심어린 감사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신임회장 공천실패와 선출 무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한다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지 웹사이트

www.chdaily.com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이영인 기자

나라정비
나라오토덴트
유럽차전문점
SMOG CHECK
323.734.4881 | 월~금: 8am~6pm / 토: 8am~5pm 1201 S.Western Ave, LA 웨스턴과 12가

타이어 대리점
GOOD YEAR
범퍼·도어·바디복원·무료견적·Rent Car

아이비 유학
3·7·21 재능캠프
Shelby Kwon
Director
적성검사를 통한 진로 선택의 지름길
재능 계발: 토랜스, 얼바인 Class
(Verbal, Visual, Logical, Creative, Physical, Emotional)
LA 500 Shatto Place, Suite 200
Torrance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Irvine 17702 Cowan, Irvine, CA 92614
USA Tel: (949) 329-8222
Email: shelby.moon65@gmail.com
www.MyIvydream.com

제49대 남가주 한인 목사회

회장단 이취임 감사예배

남가주 한인 목사회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늘 저희를 위해 관심과 크신 애정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가주 목회자들이 하나되어 지역사회와 교회들을 섬기기 위하여 제49대 남가주 한인 목사회 회장단 이취임 감사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을 초청하오니 오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서 목사
신임회장



백지영 목사
이임회장

일시 2015년 12월 13일(주일) 오후 4시 30분

장소 세계아가페선교교회 (담임 김요한 목사)

주소 933 Lake St., Los Angeles, CA 90006

문의 임규서 목사 (213)820-9414

남가주 한인 목사회

Southern California Korean Ministers Association

회장: 임규서 목사(213-820-9414) 총무: 최경일 목사(541-778-2676)

“제8회 목사장로부부찬양단 정기연주회”

목사장로부부찬양단(단장 정윤두 목사·지휘 전중재 교수·반주 헨렌 박) 제8회 정기연주회가 지난달 29일(주일) 오후 7시 월서연합감리교회에서 열렸다.

총무 강평근 목사 사회로 시작된 연주회는 단장 정윤두 목사의 인사말과 함께 성가합창으로 이어졌다.

정 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 정기연주회를 통해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며 “오늘 찬양으로 인해 교회마다 영성이 회복되고 복음이 강력하게 선포되므로 LA지역의 악한 어둠의 권세가 풀어지고 묶였던 자들이 회복되고 기쁨의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했다.

정 단장의 인사말에 이어 시작된 성가합창에서는 “온 세상 위하여, 감사의 기도, 거룩한 주” 등을 합창하며 연주회의 서막을 올렸다.

특히 첫 무대를 고운 한복 차림으로 나선 사모들의 모습은 단아한 한국적 미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지휘자 전중재 교수 편곡의 수준 높은 씨씨엠모음곡 합창은 특히 돋보였다.

특별출연으로는 바리톤 박재용 목사와 소프라노 박경숙 사모 및 죠이플남성선교중창단이 함께하며 참석자들에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보답했다.

성가합창은 “너로 인하여 주께 감사해, 우리는 주의 지체” 등을 합창



목사장로부부찬양단(단장 정윤두 목사)이 ‘주는 반식’을 합창하고 있다.

하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

또한 전임단장인 주재임 목사에게 공로패를, 진메리 장로에게는 감사패를 각각 증정하는 시간을 마련하여 그동안 이 찬양단을 위해 수고

한 그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 후 김인철 목사의 축도를 끝으로 모든 행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 찬양단은 매주 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 30분까지 나성영

락교회(담임 김경진 목사) 소망관에서 연습한다. 가입문의는 총무 강평근 목사(818-468-8672)에게 하면 된다.

이영인 기자

“OC기독교교회협의회 제25차 정기총회 개최”

신임회장 민승기 목사·수석부회장 이호우 목사 선출



OC기독교교회협의회 제25차 정기총회를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OC교협) 제25차 정기총회에서 회장에 민승기 목사, 수석부회장에 이호우 목사가 인준을 받았다. OC교협은 상임이사회가 회장과 부회장을 공천하고 총회가 인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19일 갈보리새생명교회에서 열린 총회에서 회원들은 민승기 회장과 이호우 수석부회장의 공천 사실을 보고받고 만장일치로 이들을 인준했다. 신임이사장에는 민경업 목사(증경회장), 총무이사에는 김기동 목사(직전회장)가 임명됐다.

김준형 기자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앞줄 오른쪽으로부터 네 번째)총장 류종길 박사

있었다. 로버트 클릿가드 박사(전 클리어몬트대학원 총장)는 축사로 김종환 박사(박사원장, 서울신대 명예교수)는 격려사로 각각 김 교수를 축하했으며 이정근 목사(명예총장)의 폐회기도 후 식사와 교제 시간을 가지며 모든 순서를 은혜롭게 마무리했다.

한편, 미성대학교는 ATS에 가입한 ABHE 정회원이며 자체 I-20를 발급하고 있다. 또한 지난 9월에 개설한 D. Min 과정에는 현재 온라인 수강(한국) 35명을 포함 총 42명의 학생이 수강하고 있다.

가을학기 수강신청 마감은 8월 20일, 봄학기 수강신청 마감은 1월 20일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화 323-643-0301(행정처)로 문의하거나 웹사이트 www.aeu.edu를 참고하면 된다. 주소: 1818 S. Western Ave., #409, LA, CA 90006

이영인 기자

“미성대학교 후원의 밤 개최”

[1면으로부터 계속] 김 이사장은 한 사람의 신학교 후원이 놀라운 세 계선교의 역사를 펼쳐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수 있다며 후원에 동참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다.

윤석길 박사(교무처장)의 사회로 시작된 3부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에서는 김혜란 교수에게 명예신학 박사 학위 수여 및 축하패 증정이

“퓨리탄 신앙 승리 327주년 기념하자”

PARSC, 12월 15일 기념 예배



기자회견을 통해 이 예배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PARSC 관계자들.(왼쪽으로부터) 김상선 목사, 정종윤 목사, 이완재 목사, 장광춘 목사, 이호민 목사.

퓨리탄 신앙 승리 327주년을 기념하는 예배가 12월 15일(화) 저녁 7시 나성삼일교회(담임 한석호 목사, 1345 S. Burlington Ave. Los Angeles CA 90006)에서 목회자와 평신도를 대상으로 열린다.

이 예배를 준비하는 단체는 퓨리탄개혁신앙연구회(PARSC)다. 퓨리탄이 누구였는지, 그들이 남긴 신앙 유산은 무엇인지 연구하고 알리

김준형 기자

“남가주한인목사회 수석부회장에 김종용 목사 임명”



김종용 목사
신임수석부회장

남가주한인 목사회 수석부회장에 김종용 목사가 임명됐다. 지난 11월 16일 월서크리스천교회에서 열린 49회 총회에서는 수석부회장 출마자가 없어서 이를 선출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리고 총회 일주일여 만에 남가주한인목사회는 김종용 목사를 수석부회장에 임명했다. 김종용 목사는 나눔과 섬김의 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며 기독교복음선교연합총회(CGMA) 총무,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 교무처장을 맡고 있다.

김준형 기자



골든게이트침례신학대학원에서 한영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 목회학박사(D.Min.)

위치: GOLDEN GATE SEMINARY'S SOUTHERN CALIFORNIA CAMPUS

골든게이트남가주캠퍼스 (251 S. RANDOLPH AVE. SUITE A, BREA, CA 92821)

등록마감일: 12월 15일 (예비지원서 [pre-application]은 11월 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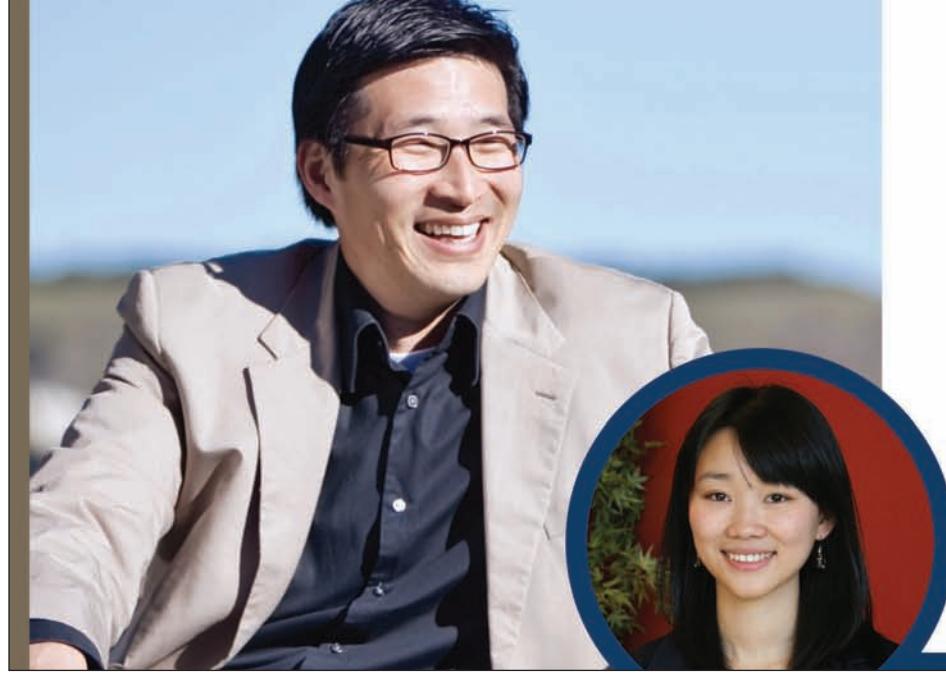
▶ 한영이중언어과정은

- 미래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 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본 과정은 주로 한영이중언어로 진행되지만 골든게이트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 714) 256-1311 EXT. 124 KEB@GGBTS.EDU

FOR MORE INFORMATION: WWW.GGBTS.EDU/KEB



단단히 정신 차리지 않으면 자칫 세상의 길로 가기 쉬운 것이 신앙생활이다. 목회도 마찬가지다. 그것을 아셨기 때문일까. 예수님께서는 2,000여년 전 산상수훈을 통해 말씀하셨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멀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마태복음 7:13-14). 물질 만능주의와 성장제일주의가 지배하는 이 시대에는 크리스천들에게 조차 너무도 잊힌 말씀이지만, 귀 기울이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절절히 묻어난다. 한인타운 크렌서 블라버드의 올림픽-피코 구간을 지나다 보면 만나는 하나크리스천센터(1135 Crenshaw Blvd, LA·목사 이용욱)는 오늘도 이진리를 따라니름대로 좁고 험한 길로 가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출범한 공동체. 현재 출석교인이 100여명(어른 약 60명, 어린이 약 40명)에 달하는 이 교회는 시작부터가 달랐다.



문턱이 낮은 교회인 하나크리스천센터. 이용욱 목사(왼쪽에서 두 번째)는 다채로운 문화사역으로 1.5세와 2세들을 이끈다.

누구나 맘 편히 찾는 ‘교회 같지 않은’ 교회

■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찾아 〈3〉

하나크리스천센터

USC 졸업 후 풀러신학대학원에서 M.Div.를 받은 이용욱 목사가 젊음의 거리인 6가와 노만디 코너 한 빌딩의 공간을 빌려 오프닝 예배를 드린 것은 한국의 IMF 구제금융 사태가 터진 직후인 1997년 12월. 찬양밴드의 신나는 음악에 맞추어 200여 명의 참석자들과 함께였다.

“교회를 거부하는 20대 청년들을 전도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었습니다. 6-12개월 정도 기본신앙을 그들에게 심어주어 일반 교회로 보내겠다는 목표를 세웠지요. 음악, 영화, 인터넷, 기타 미디어 등을 적절하게 활용하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외모 관리에 시간과 돈의 낭비가 많다는 자각에 따라 30대 중반에 과감하게 ‘영국 신사’라는 별명을 포기하고 장발의 길로 들어선 그는 “전도기관처럼 출발했으나 처음 신앙을 갖게 된 이들을 위해 주일예배를 마련하면서 수년에 걸쳐 자연스럽게 교회가 되었다”고 회고한다.

초교파 독립교회로 1.5세가 주류를 이루는 하나크리스천센터는 ‘삼무교회’라 부를 만하다. 자체 건물, 사례비, 직분이 없기 때문이다. 우선 교회 건물을 리스해서 쓰고 있다. 다른 목회자 없이 훌륭한 목회하는 이 목사(이 교회에서는 담임목사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파트타임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간사와 더불어 무보수로 봉사한다. 모두가 자발적으로 섬길 뿐 장로, 집사 등의 직분이 따로 없고 전 교인이 연말에 한 차례 열리는 공동의회에서 재정보고, 사업계획 등을 함께 다루고 필요한 토론을 한다.

뿐만 아니라 교인 등록절차도, 구역, 목장, 선교회 등 관리조직도 존재하지 않는다. 현금이라는 것이 다 감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교인들은 여러 복잡한 명목 없이 주일현금을 예배실 뒤에 비치된 현금함에 저마다 넣는다. 점심도 자원자들이 돌아가며 준비하고 없을 때는 도넛을 먹는다.

“10년 전에 합동신학대학원 송인규 교수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에게서 ‘삼무교회가 이상적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더라고요. ‘21세기의 대안교회’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지요.”

주일예배는 모두 3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1부 ‘열린전통예배’(오전 8시30분)는 교회에 다니다 중단한 기성세대를, 영어로 진행되는 메인 예배격인 2부 ‘페밀리워십’(오전 11시)은 부모 어린이 청소년 모두를, 3부 ‘하나열린예배’(오전 11시30분)는 청장년을 각각 주 대상으로 삼는다. 자녀들은 패밀리워십 후 45분간 연령별로 주일학교에 참여한다. 오후 2-4시에는 청년 제자훈련이 이어진다. 매주 첫째 토요일과 셋째 목요일 저녁에는 엄마들과 아빠들을 위한 토론 중심의 성경공부

직분 건물 사례비 없는 ‘삼무교회’

턱없는 목회로 불신자 마음 열어

전도 가정사역 영성계발 강화계획

가 각각 마련된다. 이밖에 밸런타인 뮤직 카페, 부활절 파트리뱅킷, Pop·CCM 라이브 콘서트, 패밀리 피크닉, VBS 캠프, 가을 리아브뮤직·무비 카페, 추수감사절 페스티벌, 크리스마스 콘서트 투어, 연말 셀리브레이션 등 독특한 행사가 연중 진행돼 교인들을 평안의 줄로 묶는다.

또 양로원 선교도 열심히 하고 있고, 문화사역에 힘쓴 결과 이 교회 영상문화선교팀이 제작한 단편영화가 영화제에서 최우수상을 받는 열매를 거두기도 했다.

불신자들도 부담 없이 올 수 있는 문턱이 없는 교회를 지향점으로 삼기 때문에 하나크리스천센터에서는 모든 사역이 정직한 분위기에서 진행된다. 그래서 방문하는 사람들로부터 “개주얼한 미국교회 같다”는 평을 듣는다.

이 목사는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만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하지 않고 가정과 일터 등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도록 이끈다.

이 교회는 연합사역에도 열심이다. 2세들의 ‘조용한 탈출’

현상을 마을 길을 모색하는 ‘차세대사역연구회’에 동참하는 한편 이 목사와 다른 교회 찬양팀 리더들이 작은 교회들을 방문해 추억의 찬양집회를 갖는 사업단체인 ‘8090 찬양팀’을 적극 후원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이 교회에서 작은 교회들의 하나님과 교제를 위한 ‘삼삼오오 찬양예배’도 열렸다. 옹기종기 모여든 교인들은 개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구원받은 크리스천은 모두가 주안의 한 가족’임을 확인하며 하늘 아버지를 함께 찬송했다. 이 예배는 내년에도 4차례 더 열린다.

하나크리스천센터에도 고민은 있다. 예배 출석인원이 서서히 줄어드는 한편 새 교인의 전도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그중 대표적이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 받은 사람들이 최근에 거의 없다는 사실이 가슴 아파요. 우리의 현주소를 돌아보며 모든 예배와 프로그램, 이벤트, 인테리어 등을 업그레이드할 때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사역 전반을 안팎으로 개조하는 것이라고요.”

이 목사는 “우리만의 개성을 되찾으려고 ‘가정사역’이라는 목표를 재정립한 다음 연령, 지역, 문화권별로 사역 대상을 선정하고 그들에게 집중하는 단계적인 전도전략을 세웠다”며 “거기에 필요한 사역팀 훈련, 자금 확보 등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열린전통예배’와 ‘페밀리예배’를 통한 전도, 청장년 영성계발, 청춘 토크콘서트인 ‘티라콘’(티라미슈 라이프 콘서트) 활성화, 결혼 전 카운슬링을 포함한 가정사역, 작은교회 이벤트 기획 및 운영 지원사역 등 며지않아 이 교회가 활발하게 펼쳐 나갈 사역이 기대된다.

하나크리스천센터의 목회가 모든 교회의 모델은 될 수 없지만, 이민교회에서 소외된 이들을 끌어안는 한편 가치관을 새롭게 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인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시도임은 분명하다.

문의: 323-934-0058

김장섭 전문위원

천국의 다 둘러보시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찰리 정

Hyundai
Puente Hills Hyundai
찰리 정(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213-389-8275
520 S. Virgil Ave., #305 Los Angeles, CA 90020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나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약력 북경중의약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임상(심리한의대)
수술없는 한방 성형
차진 턱선을 올려 젊음유지
이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Earn your
Associate degree
in just ...
ONE YEAR!**

LAORT COLLEGE
WE PUT EDUCATION TO WORK

● Accounting
● Business Management
● Administrative Assistant
● Phlebotomy
● Medical & Clinical Assistant
● Medical Office Management
● Pharmacy Technology Administration
● Digital Media
● Computer Aided Drafting & Design (CADD)
●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ESL)

한국어 상담 그레이스(Grace)
직 통 : T(213)703-6863
Office : T(323)966-5444

WE OFFER:

- Financial Aid and Scholarships are available (for those who qualify)
- Job and Career Placement Assistance
- Day and Evening Classes
- Transportation Assistance
- Student Visa Assistance
- Accredited by ACCET

LAORT.EDU
800 NON-PROFIT SCHOOLS WORLDWIDE
1.800.998.2678

MID-WILSHIRE CAMPUS
6435 WILSHIRE BOULEVARD
LOS ANGELES, CA 90048

SAN FERNANDO VALLEY CAMPUS
14519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힘껏하고 있다.

만남의교회 “이웃초청 추수감사예배”드려

만남의교회(담임 이정현 목사)가 추수감사주일인 지난 11월 22일 오전 10시 이 교회 본당에서 친구와 이웃을 초청해 “추수감사절 5감(感) 축제 한마당”을 열었다.

1부 예배는 기존 형식의 예배에서 벗어나 오감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도록 했으며 우리의 전통 문화와도 어우러져 눈길을 끌었다.

이정현 담임목사는 “개인적인 예배에서 공동체 중심의 예배, 수동적인 예배에서 능동적인 예배, 정적인 예배에서 동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에서 삶의 현장의 감사가 담긴 예배를 드리고 싶었다”

고 말했다.

예배 시작부터 유스 그룹, EM 찬양대와 사물놀이의 흥겨운 연주에 맞춰서 솔로몬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성전에 입장하는 모습이 재현됐다. 농악대와 사물놀이의 북 연주와 연합찬양대의 국악찬양은 인상적이었다. 특히 폐회 찬양은 ‘페지나 칭칭나네’라는 우리 가락을 이종한 장로가 선창하고 다같이 부르면서 전쟁에서 승리하듯 승리로 예배를 마쳤다.

은혜로운 간증시간도 있었다. 이재철 집사는 “두 교회가 하나되어서 교회의 참 모습을 발견하고 하

나의 목표를 향해 전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김동호 집사는 “죽은 교회가 다시 살아났다”면서 “살아있는 공동체로의 회복에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이정현 목사는 이사야 43장 18-20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아픔과 어려움을 통해서 결국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기억 하자”고 설교했다. 이 목사는 “우리는 과거의 기억 속에 사로잡힐 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서 “모든 상처를 싸매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성찬식에서는 사랑의 떡을 나누고 이정현 목사의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무리했다.

2부 친교행사인 뒤풀이는 성도들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과 고르예술단의 난타 북 공연, 김원일 명창의 창, 진도 북춤, 장구춤, 삼고무 북춤, 사물놀이, 텁 연주, 태권도 시범, 크로마하프연주와 바디워십 등 다채로운 공연으로 이어졌다.

한편, 만남의교회는 해외한인장로회(KPCA)에 속한 교회로 지난 5월 17일 벨리서울교회와 만남의교회가 통합 감사예배를 드리며 하나 됐다.

이인규 기자



주님의빛교회(담임 주혁로 목사·맨앞줄 정중양)가 순회선교단의 ‘느헤미야 기도회’에 참여했다.

주님의빛교회 “느헤미야 기도회” 동참해

“주님은 이 땅에 큰 불을 일으키시기 위해 불씨 같은 느헤미야 한 사람으면 충분했습니다.”

개인의 기도를 넘어 연합된 기도의 힘으로 24시간 52일 간의 기도 성벽을 세워 열방이 주 볼 때까지 무너진 세상의 영역들에 주의 영광이 임하길 기도하는 순회선교단 주최 느헤미야 기도의 불꽃이 캘리포니아에서도 타올랐다.

주님의빛교회(담임 주혁로 목사)에서 지난 11월 9일(월) 자정부터 20일(금) 자정까지 두 주간 동안 느헤미야 기도회가 진행됐다.

마지막 날 기도의 순서를 맡은 주님의빛교회 기도팀들은 이날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 기도 시간을 갖고 간절히 기도했다.

유럽에서 진행된 미션넷 컨퍼런스를 통해 40여 개국의 3000여 명 청년들이 주를 위해 헌신하기로 결

단한 소식, 동성애자임을 스스로 밝히고 전도 금지 공약을 내세운 서울대 학생회장을 위한 기도, 한국 청소년들의 윤리적인 개방성과 동성애 인식의 변화 등 이들은 미리 만들어진 교본을 함께 읽고 성경도 묵상하며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서로 나누며 합심으로 기도했다.

기도회에 참석한 한 성도는 “처음에는 한 시간도 제대로 기도할 수 없었던 내가 펫박받는 크리스천을 위해서, 크리스천을 펫박하는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말할 수 없는 힘이 났다.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계속 기도하게 하셨다”고 말했다.

또, 한 장년 성도는 “기도를 통해 세대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며 “세대간의 장벽을 허무는 기도의 힘을 발견해 너무 감사했다”고 전했다.

이인규 기자

베데스다대학교 총동문회

베데스다대학교 총동문회(회장 백석영 목사)에서는 한 해를 마감하며 선후배 동문들이 함께 하는 아름다운 자리를 만든다.

*일시: 12월 5일(토)
*시간: 오후 5시
*장소: 왕성(중식당)
*주소: 1199 N. Euclid St.
Anaheim, CA 92801
*문의: 714-517-1945

이 교회 담임인 주혁로 목사는 “기도 훈련을 통해 성도들이 개인 중심에서 선교 중심으로 신앙이 바뀌었다”며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인규 기자



◆하나투어와 함께 하는 은혜와 감동의 이스라엘 성지순례 ①

〈예루살렘 편〉

평화의 도시(Ir=도시, Shalom=평화)라는 뜻의 예루살렘은 해발 800m의 산악지대에 위치한 도시로 그 역사가 무려 3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BC 1000년경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세운 이래 이곳은 나라명이 바뀌고 주민들이 이주하는 등 질곡의 역사를 거쳐왔다. 현재 예루살렘은 성경상의 예루살렘 성(Old City)과 19세기 말 이후 새롭게 발전하고 있는 신시가지(New City)로 구분된다. 예루살렘 성은 16세기 오스만투르크 술탈리만 1세가 쌓은 사방 1km의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신시가지는 그 주변으로 계속 확장되고 있다. 성 안에는 성경에 기록된 다양한 성지들이 자리하고 있어 순례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 감람산 지구

예루살렘의 동부 구릉에 있는 산

올리브 산이라고도 한다. 4개의 봉우리로 이뤄진 이 산의 서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이 시작된 겟세마네동산이 있으며, 〈사도행전〉에 따르면 이 산 정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지 40일 후에 승천하셨다.

현재 이곳에는 예수승천기념 교회, 주기도문 교회를 비롯한 수많은 교회가 있다. 예수승천기념 교회는 십자군에 의해 재건됐으나, 12세기 초 살라딘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현재까지 이슬람의 소유로 남아 있다. 산 정상에 오르면 예루살렘 시가지, 요르단 계곡, 사해의 북쪽, 모암의 산들을 바라볼 수 있다.

3 겟세마네 교회

겟세마네는 예수 그리스도가 잠히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을 마친 후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던 곳.(막 14:32,요 18:1, 마 26:36)

세계 12개국의 모금으로 건축되어 만국 교회로도 불린다.

4 황금문

감람 산에서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면 성전 산 동편으로 보이는 문. 11개 예루살렘 성문 중 가장 아름다워 ‘미문(美門)’ 혹은 황금문으로 불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던 문이다.

문의: 엘에이 본사(213)736-1212

김상준 매니저(213)201-5369

무료전화: 1-877-464-6121

FAX: (213)736-1221, (464)349-3971

웹사이트: www.usahanatour.com

주소: 3053 WEST OLYMPIC BLVD #101

Los Angeles, CA 90006



매니저 김상준.

기독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종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선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장 : 로스엔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l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감사의 계절을 맞아 탑미디어에서 할인쿠폰을 제공해 드립니다.

설교시디



행사용 시디앨범



각종 현수막 및 스탠드배너



기념 수건



2016 축복 말씀카드



신년표어를 담은 열쇠고리, 텁블러, 머그컵 제작



\$20 OFF
(\$100 이상 구매시 사용가능합니다.)
Code:Thanks153

이메일 주문시 쿠폰코드를 써 주시면 되십니다. 쿠폰은 1회 사용가능하며, 중복할인은 불가합니다.

유효기간은 2015년 12월 4 일 주문시까지.

영광을 얻기까지

데살로니가후서 1:1-12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호

1. 교회의 소망적인 믿음

본문에서는 세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이하에서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라는 지시를 받고 과속 받아 가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 실라는 사도 바울에 있어서 오른 팔과 같은 요긴한 동역자로, 선교의 협조자로 봉사해 왔습니다. 데살로니가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함께 했습니다. 그 후에 믿음의 아들이라고 일컫는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봉사한 일이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목회자 입장에서는 바울이나 실라나 디모데가 한마음으로 계속 애지중지 가꾸어왔던 교회였습니다. 그렇기에 그 교회가 소망적이고 모범적으로 믿음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여 그들의 수고는 넘치는 보람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나, 실라나,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전한 복음의 말씀에 데살로니가 인들은 100% 그대로 믿어지는 믿음을 가졌습니다(살후1:10下). 그 랫기에 그들의 신앙은 잘 자랄 수 있게 되었고, 같은 하늘소망을 목적으로 주안에서 형제, 자매된 상호간에 이해하고, 협조하고, 아끼고, 사랑의 교제가 뜨거워지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곳에서 선포하는 말씀들은 여러분을 위하여 제시하신 약속의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은 연고로 무시하고, 거부하며, 불신함으로, 결국 자신의 이권야심(利權野心)의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그 말씀들은 불행하게도 여러분의 불신앙이라는 벽에 부딪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실패와 고통, 절망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2. 끝까지 참고 견디는 믿음

목회자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신자는 이미 복 받은 성도입니다. 목회자에게 근심과 걱정거리가 된다면 그 인생은 영적인 소망도 잘못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형편도 말할 수 없이 비참한 지경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는 이유 때문에 당하는 편법과 환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나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 수 있다고 믿어진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길을 기대할 수 있다는 소망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속해 사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이곳은 원수 마귀가 행세하는 적진과도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천국의 역사를 확장시키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에서 존경받고 칭찬들을 것이라는 기대는 어리석은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믿음을 바로 지키느라고 받는 고통은 절대로 손해가 없습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면 마침내 이기도록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으로 체험하실 것입니다.

전날에는 마귀에게 소속되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원수와 같았던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구속하신 은혜의 복음을 듣고 믿어 회개했기에, 마귀와의 인연을 끊고 그동안 지었던 죄를 보혈의 공로로 용서받아 하나님께 소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의 허락받은 영원하고 신령한 조건을 바라보며 새 출발하는 것이 중생한 성도의 사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기 전에 가졌던 직업이나 직장 중에는 중생한 성도로서 계속 할 수 없는 것들도 있음을 알 것입니다. 믿는 자의 신분에 어긋나지 않는 직업을 갖는 것 또한 신앙을 위해 잘 고려해야 할 일입니다.

잘 기억해야 할 것은 이제는 하나님께 속하여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전의 주인 되었던 마귀가 그런 우리들을 가만히 놔둘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離間)시키고 믿음을 뒤흔들어 시험 들게 하여 또다시 마귀에 속한 자로 만들기 위한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완전히 마귀에 속한 자

도 아니요, 그렇다고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도 아닌 채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말할 수 없는 갈등과 고통, 고달픔의 연속일 것입니다. 이들은 생각으로는 믿지만 행동으로는 옮기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생활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귀가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직분을 얻어 생활하고 있더라도 결국에는 마귀에게 쓰임 받는 사람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했다면 마귀와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단절하고, 그 올무에서 벗어나서 해방과 은혜 안에 자유 할 수 있는 결단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은혜 안에 살아갈 때에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요 14:20)하셨습니다.

3.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데살로니가후서 1장 6-7절에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받는 환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 값의 보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오로지 믿음 지키려는 일념으로

몸부림치며 살았는데, 영적인 소속이다르기 때문에 나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마귀가 괴로움을 가해 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은 편히 쉰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헬라어로 풀이하면 ‘구겨졌던 것이 펴지고 얹혔던 것이 풀어진다’는 뜻입니다. 즉, 회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살후 1:8-9)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 괜한 트집을 잡고 편법을 한다 해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말처럼 그 사람이 분별없이 하는 짓이기에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상대방을 대할 때, 여러분의 신앙인격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 중 겪는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오로지 하늘의 뜻을 받들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믿음의 정절을 목적으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잘 했다면, 그 모든 고난의 분량만큼 내 둑으로 돌려받게 됩니다(살후 1:11-12). 나의 수고에 따라 내게 돌아올 분깃이 결정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은교회 장재호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국 선교 설교		한국 신문 설교	
T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TV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Worship DC.			
해외 선교 설교			
TV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TV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Worship DC.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310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미국 신문 설교		미국 신문 설교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650 LA 미주 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화요일 오후 7시30분
	AM1650 LA 미주 기독교방송		AM1650 LA 미주 기독교방송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https://www.youtube.com)에서 “장재호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 성은복음선교회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 미국 독점 출시 기념 파격 세일

Special Price

1병 \$89 + tax 3병 \$249 + tax 6병 \$474 + tax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



40여 년간 당뇨 연구를 해온 대한민국 대표과학자로 한국인 최초로 미국연방 정부 지원을 받아 당뇨 신약개발을 위해 FDA 2차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전, UCLA 의과대학 연구교수, 미 재향군인병원 수석연구원 세계3대 인명사전 Marquis Who's Who 등재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213.434.1170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당뇨병의 원인

아연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필수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체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6개월 이상 복용하시면 체장 베타 세포의 기능 복원을 개선하는데 PRO-Z GOLD가 해결해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수만 종류의 당뇨약이나 인슐린으로 혈당유지에 그쳤으나 PRO-Z GOLD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여, 분비된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도록 도와 내 몸에서 스스로 혈당을 조절하게 하는 당뇨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솔루션입니다.

식후 혈당 상승억제와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입니다.

타주 대리점 및
프로지셀러모집중



송해선생님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프로지골드

Christian Preschool 원장 초빙

2016학기 Christian Preschool 자체운영과
관련하여 원장을 초빙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린이들을 돌보며 Preschool 운영에
열정을 가지신 분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자 격: 원장 Director License 소지자
State Policy 규정에 의해
Preschool 운영에
결격사유가 없는 유경험자
제출서류: 이력서, 신양고백서, 자기소개서
제 출 처: 선한목자교회
우편접수: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이메일접수: info@sunhanchurch.com
문 의: (909) 591-6500



www.sunhanchurch.com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성경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성경공부를 통해 영성과 인성교육을 하며,
골프를 통해 집중력과 체력향상을 시켜줍니다.
귀한 자녀에게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르치는
전문인에게 믿고 맡겨주십시오.
달라지는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직업 가능

■ 문의 : 최 제이콥 Professional (310-598-0746)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 Players Tour
12~14살, 18홀, 1~2명 모집
■ 피아노반주 가능한 전도사님을 찾습니다.



〈최 제이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신학박사(D.D.)
현 '제일좋은 예닮교회' 담임목사

담임목사 청빙 공고플로리다 주에 있는
레이크랜드 한인장로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사임하신
관계로 이민 목회의 비전과 소명을 가지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 가실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아래와 같이 모시고자 합니다.

청빙자격 및 요건

- 해외한인장로회(KPCA), 혹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소속이거나
해외한인장로회 교단 가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 정규 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하신 분으로 목사 안수 후
5년 이상의 목회 경력을 가지고신 분
- 이중 언어 (한국어/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신 분
- 합법적으로 미국 체류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제출 서류

- 이력서(사진첨부, 학력, 목회경력, 일반경력)
- 목사안수증명서, 신학대학원(M.Div)졸업 증명서 및 최종학위증명서 각1부
- 자기소개서(본인 및 사모를 포함한 가족 포함- 가족사진 포함)
- 최근 6개월 이내의 설교 동영상 2회분
(영어 설교 가능한 분은 1회 분에 대해서 영어 설교 제출)-DVD or Web link 등
- 연령 45-55세 미만 (사모님 피아노 반주 가능 우대)
- 추천서 2부(각 추천인의 필봉 날인과 추천인 연락처 요망)

제출 방법

- 우편주소: Lakeland Korean Church
Attn: Pastor Nominating Committee (담임목사 청빙 위원회)
1018 Neville Ave, Lakeland, FL 33805
- E-mail: peterkim1953@gmail.com (1-316-644-0035)
청빙위원회 서기 Peter Kim
- 서류마감: 2015년 11월 14일

기타 사항

- 제출서류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 함) 혹은 E-mail에 첨부(PDF파일)로
먼저 보내주시고 E-mail로 모든 제출 서류를 보냈음을 반드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비밀을 보장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서류심사에 통과된 분은 추가서류와 면담을 요청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교회 홈페이지(www.lkpc.onmam.com) 통해 기타 자세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외한인장로회 동남노회
레이크랜드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 김인수 교수의 한국 교회사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4)



김 인 수 교수

전 미주장로회신학대 총장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났던 대부
흥운동은 향후 한국 교회의 신학과
교회 형성에 지대한 결과를 남겨 놓
았다. 우리는 여기서 그 결과 중 중요한
몇 가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로 이 운동은 한국인들로 하여금 진정한 기독교의 진리를 터득하게 했다. 기독교 진리가 한국인들 마음에 뿌리내리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지금까지 한국인들이 기독교 신앙을 여러 가지 동기로 받아들였으나 참 기독교 진리를 터득하진 못했다. 그러나 이 부흥운동을 통해 비로소 참된 회개와 성령의 감동,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결단하는 삶, 즉 전형적 그리스도인됨의 과정을 통과하게 됐다. 지금까지 기독교 신앙은 유지하면서도 그대로 방치했던 사당(祠堂 devil house)을 이 부흥운동 후 헐어 버리는 사례가 빈번했던 현상이 이를 입증한다. 한 선교사는 부흥운동이 가져온 한국인들의 변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이 신앙 체험의 결과로……신자들 가운데 의와 죄의 의식이 심화됐다. 이 문제에 대한 기독교의 교훈은 한인들에게는 생소했었다. 한인들에게도 죄와 의에 대한 의식이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우리의 그것과는 사뭇 달랐다. 이 부흥은 교인들 마음에 죄의 극심한 죄악성을 깨닫게 해 준 동시에 의에 살고 행하는 것이 우리의 평생 책임이란 인식을 깊이 넣어 주었다.

특히 이때 많은 회개 항목 중, 지금까지 유교적 관념으로 전혀 죄로 여기지 않았던 축첩, 노비소유, 조혼, 음주, 흡연, 아편복용, 아동구타 등의 죄악을 고백하고 참회했다. 이에 따라 청과 소실을 정리하고, 노비를 해방시키는 등의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른 행위가 정착되기 시작했다.

이런 한국 교회 형질(形質)의 정착은 앞으로 이 교회가 민족교회로서의 갈 길을 찾았다는 의미다. 1910년 에든버러(Edinburgh) 국제선교협의회에서 한국의 대부흥에 대해, “신생 한국 교회에 독자적 성신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말한 것 같이 한국의 독자적 교회 역사가 시작됐다고 보아야 한다.

둘째는 한국 교회의 급격한 성장이다. 어느 부흥운동이든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는 교회 성장이다. 1907년 전국 교회에 부흥의 물결이 훑쓸고 지나간 후에 필연적 결과 중 하나는 신자들의 전도

교회에 나오면서부터 새벽기도회에 출석하여 지금까지 16년간을 계속한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가장 세상에 드물고 모범할 만한 일은 주문언(朱文彦)씨라는 로인이 16년 전 본 곳 교회 설립시로부터 혜택당에 와서는 새벽 기도를 오날 까지 계속하다더라.” 이 새벽기도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 교회에 계속돼 오면서 교회의 성장과 영적 삶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한국교회는 전 세계 어느 곳을 가든 새벽기도회를 실시하고 있다.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기도하는 통성기도가 시작됐다는 사실이다. 그 일은 목격자의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시작됐다. “……간단한 설교가 끝나고 그레이엄 리(Graham Lee) 선교사가 사회하면서 회중에게 기도하자고 하자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기도를 시작했다. 그가 ‘여러분이 다 이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면 다 같이 기도합시다.’라고 말하니 온 회중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 정황은 실로 글로 적을 수 없을 정도였다. 아무런 혼란도 없었고 도리어 심령과 심령이 호응하는 화음이 서리었다. 기도를 올리고 싶은 충격을 저항할 수 없던 마음과 마음이 사귀는 심교(心交)였다. 기도 소리는 마치 폭포수 소리와 같아서 기도의 대해조(大海潮)가 하나님의 보좌로 밀려 올라가는 듯하였다.”

부흥운동은 이렇게 통성기도라는 한국 특유의 기도 방법이 도입돼는 계기가 됐다. 이 기도는 새벽기도와 더불어 부흥운동의 결과로 남아 오늘까지 한국 교회 안에서 통용되는 주요 기도 방식 중 하나다.

또한 이 기간 중에 철야기도가 시작됐다. 저녁집회가 밤늦게까지 계속되었으므로 멀리서 온 교인들이 집에 돌아가지 않고 교회에 남아 철야하면서 기도했다. 그리고는 다음 날 새벽기도회에 참석함으로 자연히 철야기도라는 새로운 형태의 기도가 시작되는 계기가 됐다.

이 기간 동안 평양을 방문했던 영국 성서공회 본부 종무 릴슨(J.H.Ritson)은 “사람들이 밤새 교회에서 기도하며 머물러 있었다.”고 보고했다. 이런 한국교회의 특징적 모습들 때문에 “기독교가 더 이상 서양 종교가 아닌 것으로 묘사될 수 있었다.” <계속>

사람을 쉽게 평가하는 사람들에게



한 천 영 목사

갈릴리선교교회

수년 전 한 여인이 우리 교회에 찾아왔다. 자신이 뉴올리언스에서 사업도 제법 크게 하던 사람인데,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고, 이곳 LA로 오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제 다시 그곳으로 가야 되는데, 여비가 없으니 돈을 좀 빌려 달라는 것이다. 얼핏 들어도 99%는 진실이 아니었다.

그러나 ‘목사는 알면서도 속아줄 때가 있어야 한다’는 평소의 소신 때문에 약간의 돈을 드리고는 기도해 드렸다.

그런데 그 후 1년이 훨씬 지난 어느 주일 날, 그 여인이 우리 교회에 다시 찾아와서 주일예배를 드렸다. 내가 드린 돈을 갚았을 뿐 아니라 감사헌금까지 하고 가셨다. 나는 아직도 그 여인의 정체(?)가 궁금하다.

한국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 승무원이 키가 크고 미모가 뛰어나다. 나는 한국 항공사들이 승무원 채용 기준으로 외모를 우선적으로 본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알게 된 사실이 있다. 비행기를 타면 양쪽 선반에 짐을 넣는데, 그 곳에 손이 닿으려면 키가 165cm는 돼야

가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욕을 당하고 비난을 받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너무나 잘 알 뿐만 아니라, 늘 암송까지 하던 사람들이었다. 역시 사람을 쉽게 평가하는 사람들의 유형이다.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쉽게 말하고 평가할 때가 있다. 오해를 받는 사람은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주 사소한 문제로 미숙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반면에 성숙한 공동체는 그에게 감추어져 있는 좋은 부분에 집중해서 그것이 극대화되도록 도와준다.

직업이 목사인자라, 누굴 만나도 한 두 마디 해 보면 대충은 그 사람에 대해 알 수 있다. 그래도 그 사건이나 그 사람에 대해서 쉽게 평가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 사건과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냥 할 수 있는 한 선대(善待)하려고 한다. 다른 사람도 나에게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면서 말이다.

예수님도 자신을 부분적으로 평

“한국행 가장 싼 항공권~ 하나투어로 문의 주세요” 서울 왕복 항공권 스페셜 이코노미 \$985 | 비지니스 \$3645
 (시내/어비수기) 특정편 특정일에 한정
 주중/28일전 발권 조건

★ 하나투어만의 성지순례 체험 특전 -십자가의 길 순례체험★
**[예수님의 걸음걸음- 성서 속으로]
 요르단/이스라엘 10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다(마가복음 11:11)

하나투어 기독교 성지순례는 왜 다른가요~??

- ▶ 기독교 성지순례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한 전문 상담가와 상담 및 운영
- ▶ 성지 순례상품 선택의 폭을 넓여주는 다양한 항공 이용과 합리적인 가격
- ▶ 순례자를 위한 감동 서비스! 믿을 수 있고, 안전한 현지 행사
- ▶ 성경의 이해를 더욱 효과적으로 도와주는 전문 가이드와 전문 인솔자 동행

소중한 신앙 체험의 현장에서
 순례의 감동을 더해 드리겠습니다.
**성지 순례도 역시
 1등여행사 하나투어와
 함께 하세요~**

**처음 성지순례를 떠나는 순례객들에게 안성맞춤~
 구약의 핵심을 볼 수 있는 여정입니다.**

【요르단】 성경의 땅

- ◆ 영화 [인디아나 존스]의 촬영지로 유명한 新 세계 7대 불가사의 페트라 순례
 - 페트라 시크길, 엘카즈네 사원, 야외 원형극장, 수로 등
- ◆ 세례 요한의 순교지 마케루스
- ◆ 길이 1.2km에 이르는 좁은 페트라 시크길
- ◆ 엘카즈네 사원, 야외 원형극장, 왕들의 무덤, 나비티안 유적, 수로 등

【이스라엘】

2,000년 전 예수님이 계셨던 그 곳. 역사와 종교가 살아 숨쉬는

- ◆ 신비로운 바다 사해에서 부영 체험

- ◆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신 갈릴리 순례
 - 가버나움, 베드로 수위권교회, 오병이어기적교회, 팔복교회

- ◆ 예수님이 첫번째로 기적을 베푸신 가나와 나사렛 순례
 - 가나 혼인잔치 기념교회, 마리아 수태고지 기념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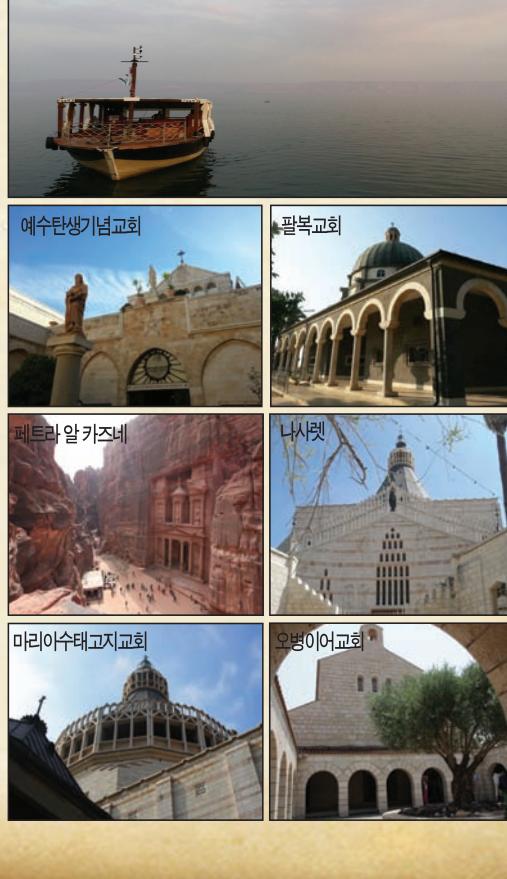
- ◆ 기독교 최고의 성지 예루살렘 순례

- 감람산과 감람산 주변의 기념교회
 - 예수님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신 십자가의 길과 골고다 언덕, 예수님 무덤교회

\$2999

출발일: 2016 1/25

상기 요금은 항공 예약 및 발권 시점에
 따라 요금이 인상 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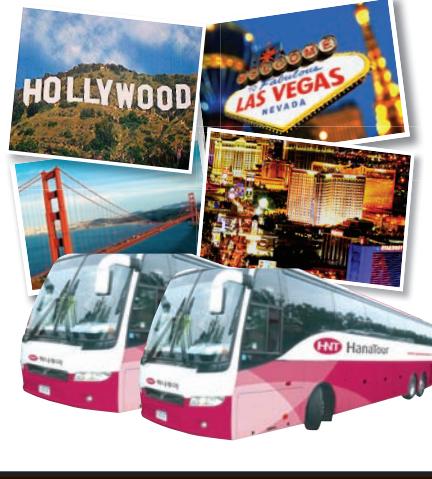


완벽한 미서부여행은 역시 하나투어가 최고입니다.
NEW | 미서부일주

한층더 여유로운 요세미티 국립공원 전일 관광
 낭만의 샌프란 시스코 금문공원, 소살리토, 트윈피크 관광
 1.하나투어만의 최신형 리무진 버스! 2.최선을 다하는 고객감동 서비스
 3.최고의 호텔로 내집처럼 편안한 숙박! 4.베테랑 가이드와 최고의 식사!



**새로운 감동의 시작! 한층 업그레이드된
 하나투어 New 미서부 관광**



● 2박 3일

- 그랜드 캐년 2박 3일 \$299 출발:화

● 3박 4일

New 요세미티/샌프란 3박 4일 \$399 출발:목,금,토

- 미서부 3대 캐년 3박 4일 \$389 출발:월,화

● 5박 6일

New 미서부 5박 6일 \$599 출발:화,토

● 6박 7일

New 미서부 6박 7일 \$689 출발:월,화

- 그랜드 씨클 8대 캐년 6박 7일 \$799 출발:12/17

- 스카이워크 2박 3일 \$349 출발:월

- 기차여행 1박 2일 \$229 출발:월,수,토

- 멕시코 1박 2일 \$179 출발:월,수,토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이제 여행 갈때는 오직 하나만 기억하세요”



하나투어 213.736.1212

무료전화: 1.877.464.6121

이제 온라인으로 편리하고 저렴하게! www.usahanatour.com

3053 W. Olympic Blvd #101 L.A., CA 90006 <올림픽과 애드모어>

• 엘에이 본사 : 213.736.1212

• 뉴욕 직영사무소 : 212.706.9177

• 리스비가스 사무소 : 702.723.4977

• 하와이 직영사무소 : 808.947.1212

• 한국에서 전화거실 : 070.8224.4021



Nizmobile

해외에서 편리한 렌탈폰 서비스
 이제 로밍폰보다는 렌탈폰!
 선불 결제로 더욱 편리해진 니즈 모바일
 선불폰! 한국여행이 더욱 편해집니다.
 하나투어에서 렌탈가능! 시간단축!
 (600이상 Pre Pay 가능)



올해도 아름다운교회(담임 고승희 목사)가 추수감사절 당일에 선교사들을 초청해 예배를 함께 드렸다.

“선교사와 중국교회 지도자 초청 추수감사예배”

아름다운교회, 선교사 가족 50여 명·중국지도자 50여 명 초청해

가족과 친지가 모이는 추수감사절이 선교사들에게는 오히려 쓸쓸할 수도 있다. 그러한 선교사들을 초청해 위로하는 아름다운교회(담임 고승희 목사)의 아름다운 ‘선교사 초청 추수감사예배’가 추수감사절 당일인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드려졌다.

미국에 안식년이나 유학 차 와 있던 선교사 4명이 “추수감사절에 칠면조 좀 얻어먹자”고 고승희 목사에게 말했던 것이 계기가 되어 시작된 이 행사는 올해로 벌써 20년째 계속되고 있다.

올해는 선교사 가족 50여 명과 중국교회 지도자 50여 명이 이 행사에 초대받

았다. 예배와 찬양, 간증과 식사 등 다양한 순서가 진행됐고 설교는 박기호 교수(풀러신학교)가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살전5:18)”란 제목으로 전했다. 특별히 KBS 남자의 자격 청춘합창단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일명 끌포츠 김성록 집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를 불러 큰 박수를 받았다.

이 행사를 위해 아름다운교회 성도들은 자진해서 추수감사절 연휴를 반납하고 선교사와 중국교회 지도자들을 섬겼다. 풍성한 점심 식사 후에는 가정마다 선물도 증정됐다.

김준형 기자



이 학교 LA캠퍼스 책임자이면서 말씀새로운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희창 목사가 아룬 다스 목사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인도 유학생과 선교 위해 장학금 전달”

남부개혁신학대학원(SRTCS) LA 캠퍼스가 인도 유학생 아룬 다스 목사에게 항공비와 학비 등 장학금을 지원했다. 이 장학금은 말씀새로운교회(김희창 목사), 뉴송교회(오서택 목사), 청운교회(이명수 목사) 등이 후원해 마련했다. 다스 목사

는 이 학교에서 문화교류학으로 박사 과정에 있다.

이 장학금과는 별개로 예수사랑교회(담임 김경준 목사)도 아룬 다스 목사가 사역하는 곳에 교회 개척을 위해 3천 달러를 전달했다.



뉴욕교협과 뉴저지교협이 회원교회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사진은 지난 19일 뉴욕교협이 회원들과 가진 교협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뉴욕교협과 뉴저지교협, 적극적 소통에 나서”

뉴욕은 교협발전 위한 토론회, 뉴저지는 소통 위한 설문조사 실시 주목

뉴욕교협(회장 이종명 목사)과 뉴저지교협(회장 이의철 목사)이 각각 새 회기를 시작한 가운데 양 교협이 동시에 회원들과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뉴욕교협은 ‘교협의 효율적인 발전과 간신을 위한 대토론회’를 지난 11월 19일 뉴욕교협 회관에서 개최했으며, 뉴저지교협은 최근 교회들을 대상으로 교협 활동 참여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변화를 위한 몸부림을 보여주고 있다.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

뉴욕교협은 대토론회를 통해 논의된 사항들을 검토해 이번 회기의 실질적인 정책으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뉴욕교협 박진하 총무는 “오는 임실행위원회에 서 정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안을 제안해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회원들의 의견들을 이번 회기에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저지교협은 최근에 뉴저지교협 발전을 위한 설문지를 각 회원교회에 발송했다. 뉴저지교협은 제 29회기 표어를 “다함께 참여하는 교협”, “소통하는 교협”(Everybody participates, Everybody communicates)으로 정하고 삼겹줄운동, 물방울운동을 주진하고 있으며 설문조사를 이 같은 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첫 사업으로 진행됐다.

뉴저지교협은 뉴저지 지역 교회 회원들을 점검하면서 행사의 실효성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했으며 또 뉴욕교협의 존재 목적 등 근본적인 역할에 대해서도



LA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00(월-금)
점은이 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주일-비침례학교 / 토요대학 / 17-와 버몬트 코너
주중사역 -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주일예배 오전 11:20 수요예배 오후 7:00
주요학교 오전 11:2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학생 청년부 예배 오전 11:20

연재선 담임목사

LA 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민자를 책임지며, 이민가정을 치료하며, 선교평장을 순종하는 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연락처 T.(213)386-2233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주일예배 오전 11:20 수요예배 오후 7:00
주요학교 오전 11:2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학생 청년부 예배 오전 11:20

연재선 담임목사

LA 온하늘교회

1540 S. St Andrews Pl., Los Angeles, CA 90019
T.(818)983-9024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연합새벽 오전 6:20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주일예배 오전 11:20 수요예배 오후 7:00
주요학교 오전 11:2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학생 청년부 예배 오전 11:20

연재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수요기도회 오후 7:30

장태원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연합새벽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LA 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1025 S. Catalina St., Los Angeles, CA 90006
T.(213) 909-6473 / www.missionla.org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주일예배 오전 11:20 수요예배 오후 7:00
주요학교 오전 11:2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학생 청년부 예배 오전 11:20

연재선 담임목사

엘리야 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0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예배 오후 7:30

한천영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978 S. Hoover St., #203, LA, CA 90006
T.(213) 272-6031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주일예배 오전 8:00 금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한천영 담임목사

한기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2부예배 주일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3부예배 주일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EM 예배 오전 1:00 토요교제방법 토 오전 9:30-12:30
한어청년부 주일 1:00 어나기어도모임 수요전 10:30

한천영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주일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주일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3부예배 주일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EM 예배 주일 1:00 토요교제방법 토 오전 9:30-12:30
한어청년부 주일 1:00 어나기어도모임 수요전 10:30

한천영 담임목사

나성동산교회

온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2525 W. James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213) 487-3920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금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한천영 담임목사

한기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2부예배 주일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3부예배 주일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EM 예배 주일 1:00 토요교제방법 토 오전 9:30-12:30
한어청년부 주일 1:00 어나기어도모임 수요전 10:30

한천영 담임목사

나성서부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서거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 (323) 939-7323 / www.kwpcfa.org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주일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주일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3부예배 주일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EM 예배 주일 1:00 토요교제방법 토 오전 9:30-12:30
한어청년부 주일 1:00 어나기어도모임 수요전 10:30

한천영 담임목사

김기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대학부 오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부 저녁 7:30(목)
유소동부, 중소동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동부 오전 10:45 토요교제방법 토 오전 9:30-12:30
한어청년부 주일 1:00 어나기어도모임 수요전 10:30

한천영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주일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주일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화-금)
3부예배 주일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화-금)
EM 예배 주일 1:00 토요교제방법 토 오전 9:30-12:30
한어청년부 주일 1:00 어나기어도모임 수요전 10:30

한천영 담임목사

김기섭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화-금)
2부예배 주일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화-금)
3부예배 주일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화-금)
EM 예배 주일 1:00 토요교제방법 토 오전 9:30-12:30
한어청년부 주일 1:00 어나기어도모임 수요전 10:30

한천영 담임목사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공동체

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213) 598-0191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동부, 팜스프링스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 교회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7:30 **김성민** 담임목사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성경공부 오전 9:30 주일학교 주일오전 10:30
영어회중예배 주일 오후 1:00

남가주새소망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500 Montebello Blvd., Rosemead, CA 91770
T.(626)872-2405 교회, (503)332-1941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후 9:15 EM 2부예배 오후 11:45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4부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오전 6:00-7:30) 오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랑을 위하여 사역하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 622-2324, F.(909) 622-1480/inland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성전) 금요예배 오후 7:30
오후 11시 (분성전) 새벽예배(화-금) 오후 6:00
분성전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T. (760) 636-2675 / pspkmc.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00
4부영어예배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봉사회 오후 8: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이희철 담임목사

갓스월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St., Ontario, CA 91764
T.(909) 268-4279 / g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새벽기도회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려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창대교회**

하나님께 영광!

173 E.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909) 388-2940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청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 10:00-11:00

이춘준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사우스 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11:00
다민족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213)365-9188

1부예배 오전 8:0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1부예배(EM) 오후 1:15
3부영어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EM)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증보기도회 오후 9:11시

정상용 담임목사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 9:30/2부 11:00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권영국 담임목사

대홍장로교회
땅끝까지 내 즐인이 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 257-8170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 530-4040 / F.(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20
주일성경공부/새교우반 새벽예배 오전 7:00(토)
오후 1:00

류준영 담임목사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불집고, 자리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church.com

교시(예배주일) 오전 9:45 수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유아동부주일 오후 11:00 구어모임 매일 1회
중고등부(주일) 오후 11:00 학교(예배) 오전 8:00
오후 12:00(분당)

최호년 담임목사

벤츄리카운티장로교회
'예수의 심장으로 삼키는 교회' (설1:8)
737 W. 6th St., Oxnard, CA 93030
T. (805) 483-7009

밸리체플 Valley Chapel 주일예배 - 오전 8:00/45
금요예배 - 오전 7:45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세리토스체플 Cerritos Chapel

주일예배 - 오전 9:30/130
목요예배 - 저녁 7:45
13808 Imperial Hwy., Santa Fe Springs, CA 90670

비전체플 Vision Chapel

주일예배(화-금)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6:00(토)

최혁 담임목사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가는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임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주일예배 오전 10:00 목요예배 오후 6:30(토)
한국어 오전 10:45(월-금)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오후 12:00(분당)

최호년 담임목사

문서/선교/교예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한국 교계 지도자 초청 현안 보고회가 진행되고 있다.

“교계 지도자들, 동성애 관련 인권위법 개정 호소”

평신도5단체협 협의회서 서명… 심각한 갈등과 혼란 초래

한국교계평신도5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가 1일 오전 11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한국 교계 지도자 초청 현안 보고회를 열고 '국가인권위원회 동성애자의 정당한 인권은 보호되어야 하며, 어떠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법은 동성애자 인권 보호를 명분으로 그에 대한 차별금지를 강조한 나머지, 그 인권 보호 차원을 훨씬 넘어 정부와 자치단체 등이 국가 예산으로 동성애를 옹호·지원하는 정책을 펴고 있을 뿐 아니라, 동성애를 반대하는 일정한 행위에 대해 국가 공권력으로 제재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큰 논란과 갈등을 초래했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항 차별금지사유 중 성적지향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김철영 목사(협의회 상임사무총장)의 사회로, 정민영 철리스트의 특주, 소강석 목사(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 본부장)의 대표기도, 김영진 장로(협의회 상임대표)의 초청 인사 및 보고, 황우여(전 새누리당 대표)·홍문종(국회조찬기도회 회장)·감경철(협의회 공동대표, 국가조찬기도회 회장)·장로의 인사말, 박주선(국회 교문위원장)·김진태(국회 법사위원장)·이혜훈(새누리당)·안상수(새누리당) 의원과 박무용(예장 합동 총회장)·채영남(예장 통합 총회장) 목사의 격려사가 있었다.

이어 전용태 장로가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청원 법률적 검토 및 보고를 하

고, 최나중 목사(서울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등이 호소문을 낭독한 뒤, 국가인권위원회법 입법개정청원서에 서명

했다. 공동대표단은 경수근 변호사(한국기독법조인회 총재)와 길원평 교수(부산대)에게 감사패를 전달했고, 참석자들이 나라와 평화통일을 위한 합심기도 및 구호제창을 진행한 뒤, 장종현 목사(예

강혜진 기자



'할랄엑스포코리아 2015'가 11월 28일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진행됐다. ©나라사랑 시민모임

“할랄산업, 이슬람 확산으로 ‘문화충돌’ 우려”

국내 처음으로 열린 ‘할랄엑스포코리아 2015’

국내 첫 할랄상품 전문전시회 '할랄엑스포코리아 2015'가 11월 27-29일까지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진행됐다.

‘월드식품박람회 2015’와 동시에 진행 중인 할랄엑스포코리아에는 ‘한국 이슬람 문화센터’, ‘할랄코리아협동조합’ 등 10여 개의 부스가 설치돼 국내 할랄상품 전시, 할랄인증 레스토랑의 할랄요리 체험, 취업상담회 및 세미나 등이 진행됐다.

또, 우리나라 기업을 위한 할랄인증 신청절차 및 인증 요건 교육과 해외인증 센터, 할랄컨설팅업체의 지원이 이뤄졌다. 그러나 정부의 예산 할랄식품단지 조성 계획을 비롯해 국내 첫 할랄엑스포코리아 개최 등 할랄문화 확산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나라사랑 시민모임’은 11월 28일 “중앙정부와 지자체 및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할랄식품이 마치 웨빙식품이고, 이슬람 국가에 수출하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블루오션으로 흥보하는데 오산이다”며 “할랄식품을 먹는 중동 산유국

이 우리나라보다 국민 소득이 훨씬 높은 데도 평균 수명이 짧고, 경제적인 실익도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할랄방식으로 도축하려면 반경 5킬로미터 이내에 돼지 사육장, 도축장이 없어야 하므로 양돈농가에 엄청난 피해가 오게 된다”고 덧붙였다.

나라사랑 시민모임은 특히 “이슬람은 할랄음식, 허접 착용 등 문화로 침투해 들어오다가, 영향력이 확산되면 비할랄 음식을 이유로 급식 거부 운동 등을 하며 반드시 문화적, 사회적 충돌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이는 국민 통합과 단합의 위해 요소가 된다”고 우려했다.

‘나라사랑 시민모임’은 할랄산업이 사실상 이슬람 유통인 사리아를 지키게 하고 이슬람의 영향력을 키워나가는 ‘이슬람 포교 전략’이라고 보고, 국내 이슬람 영향력 확산으로 인한 국민 분열 조장, 테러 위협의 증가 등을 우려해 지난 달 23일 정부와 국회에 건의문을 전달한 바 있다.

이지희 기자

“백남선·채영남 목사, 한장총 신임 대표·상임회장 취임”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 새 대표회장에 백남선 목사(예장 합동 증경총회장), 새 상임회장에 채영남 목사(예장 통합 총회장)가 각각 취임했다. 한장총은 11월 30일 오전 서울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제33회 정기총회를 열고, 이같이 새 임원들을 인준했다.

백남선 신임 대표회장은 이날 취임사

를 통해 “부족한 사람을 이 자리에 세워 주신 하나님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훌륭한 분들의 뒤를 이어 어려운 때 대표회장이 된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며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여러 중차대한 문제들을 풀어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길게 늘어선 난민 행렬. ©오픈도어선교회

“유럽교회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

유럽行 난민 증가…기독교정신 보여줄 최고의 시간

유럽의 교회는 난민들을 받아들여야 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야 한다. 이는 중동의 많은 기독교 지도자의 공통된 의견이다.

세계는 지금 수십 년간 보지 못했던 가장 큰 난민 위기에 직면해 있다. 시리아 인구의 절반이 도망 중이다. 400만 명 이상이 자신들의 나라를 이미 떠났고, 7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국내에서 떠돌고 있는 실정이다. 많은 시리아 사람들은 난민들은 유럽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현재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의 목사들은 힘을 다해 난민들을 돋고 있는 중이다. 한 목사는 “나는 유럽으로 들어가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보았다. 만약 지금 교회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사람들이 20년 후에 유럽을 파괴할 것”이라며 “교회가 눈을 열어 깨어 일어나 자신들의 나라를 향해 들어오는 사람들을 돌보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난민들은 기독교 국가들이 사우디 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가 하지 않는 일들을 해 주길 바라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기독교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며, 유럽의 교회들이 행동해야만 하는 순간”이라고 확신했다.

훔즈(Homs)주에 있는 시리아 기독교 노동자들은 “그들을 사랑하고 돌보아 달라”고 총고한다.

레바논의 한 기독교 지도자는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들에 대해 두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다”며 “그들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인간적으로 이야기하고 싶다. 하지만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서방을 향한 내 생각은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엄청난 기회이며, 교회가 무시하지 말아야 할 기회이기도 하다”며 “유럽교회들은 준비되어야만 한다. 성도들을 문화적으로 일깨우고, 그들에게 아름어를 가르치고, 무슬림을 어떻게 다루어

야 하는지를 가르침으로써 훈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유럽교회를 위한 엄청난 축복의 기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왜 유럽은 그동안 유독 시리아 무슬림들에게 문을 여는 것처럼 보일까? 알레포(Aleppo)의 한 목사는 “그들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들의 국경을 열었다”고 말했다. 시리아 서부의 한 목사도 “유럽은 현재 기독교인들보다 무슬림 난민들에게 더 관심을 갖는 것처럼 보인다”며 “왜 그들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을 돋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나 다마스쿠스(Damascus)의 한 목사는 “독일이 난민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는 것이 내게는 놀라운 일”이라며 “주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달라”고 말했다. 또 “이것은 유럽교회에 엄청난 축복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이 무슬림들을 유럽으로 이동시키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목사는 “당신이 그들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기는 어렵지만, 지금 그들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며 “지금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갈 기회를 저절로 가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목사는 “난민들이 자신들의 문화와 상황들을 떠나 자신들의 발로 유럽을 향해 왔다는 것은 우리의 역사에서 전에는 볼 수 없었던 놀라운 기회임을 알아야 한다”며 “하나님께서는 무슬림들에게 특별한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그의 강한 손으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것이라고 나는 확인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다”며 “유럽의 교회들이 이여! 깨어 일어나라!”고 호소하고 싶다”고 말했다.

[오픈도어선교회 제공]
정리 이지희 기자

“진짜 복음주의 교인이 믿는 4가지 사실”

전미복음주의협의회·라이프웨이 복음주의 교인의 정의 제시

‘복음주의 교인’은 그들의 정치적 성향이나, 그들이 다니는 교회, 스스로를 정의내리는 방식에 따라서가 아니라 무엇을 정말로 믿느냐에 따라 정의되어야 한다고 미국 복음주의 신학자들과 지도자들이 주장했다.

전미복음주의협의회(NAE)와 남침례교(SBC) 산하 종교 전문 리서치 기관 라이프웨이(LifeWay)는 지난 2년 동안 ‘복음주의 교인’의 의미하는 바에 대한 설문 연구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진행해 왔었다.

그동안 이뤄진 설문 조사들은 복음주의 교인을 정의 내리기 위해 크게 두 가지 방식에 의존했는데 하나는 ‘스스로 복음주의 교인이라고 밟히는’ 경우와 ‘복음주의 교단에 속한’ 경우였다고 NAE는 설명했다.

NAE 리스 앤더슨 회장은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발표한 성명을 통해서 “복음주의 교인들은 오해받아 왔고 자주 잘못된 쪽으로 분류되어 왔다. 이는 대개는 조사 때마다 계속 그들을 특징짓는 성격이 다르게 소개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앤더슨 회장은 이에 복음주의 교인들이 ‘믿는 바’를 통해서 정의내려질 수 있도록 라이프웨이에 오늘날 미국 복음주의 교인들의 신앙에 대한 설문 연구를 의뢰했다. 복음주의 신학자, 사회학자, 지도자들이 참여해 17가지의 질문을 뽑았고, 여기서 다시 복음주의 교인이라면 부인

할 수 없는 4가지 사실을 추려냈다.

두 단체가 꼽은 4가지 사실은 다음과 같다. △성경은 내 믿음의 가장 권위 있는 기준이다. △비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도록 하는 일이 개인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나를 죄의 삶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유일한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영원한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값 없는 선물을 얻는다.

라이프웨이는 9월 8일부터 21일까지 1천여 명의 미국 성인들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 조사를 실시해 이 4가지 사실에 대해 동의하는지 여부를 물었으며, 이를 통해 이 기준이 복음주의 교인을 정의 내리는 데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앤더슨 회장은 앞으로 이 같은 4가지 기준을 통해서 복음주의 교인들이 정의내려질 수 있도록 설문 단체들과 연구 단체, 미디어 기관에 이 같은 기준을 알리고 소개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52% 가 성경이 가장 권위 있는 믿음의 기준이라고 답했으며, 49%가 비기독교인 전도가 개인적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58%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서의 죽음만을 죄로부터의 구원의 길이라는데 동의했으며, 48%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만이 영원한 구원에 이른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

손현정 기자

O.C./얼바인 지역

결혼설, 사모교설, 부부교설, 아버지교설
www.GodFamily.com
www.CMF.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1부) 10:00am 수요풀기도회 9:00pm 앤드류 김 담임목사
(2부) 1:30pm 금요온전철아동예배 8:00pm
새벽예배 (월-토) 5:00am - (금요일) 7:00am
화요중보기도회 7:00pm 토요경년예배 7:00pm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531 5.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4-8360, Cell: 714-600-7700 www.ubm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중, 고등부 예배 오후 2:30 오병익 담임목사
2부예배 오후 12:30 유, 초등부 예배 오후 12:30
도요사랑예배 오전 6:00 설기축 예배 - 매월 4주째 주일 오후 5:30분
대학청년예배 오후 2:30

남가주 벤엘 교회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교회
18523 Arline Ave., Artesia, CA 90701
T. (714) 801-1625 kpcadavid@yahoo.com

1부예배 오전 9:00 금오성령집회 오후 8:00 박재만 담임목사
2부예배 오후 11:00 한글예배 오후 6:00 (금)
주일학교 오후 11:00 새벽예배 새벽 5:30 (월-금)

남가주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4552 Lincoln Ave.#207, Cypress, CA 90630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1부예배 (EM) 주일 11:00am 금요찬양예배 7:30pm 안창훈 담임목사
영예예배 (EM) 주일 9:00am (매월 2번째 금)
고등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p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늘푸른선교교회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 808-9191 / www.missionway.org
mcc.office.email@gmail.com

1부예배 1부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0:30 고현종 담임목사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3부 오후 12:20 4부 오후 2:00 (점은이예배) 토 새벽 6:20

디사이플교회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 (949) 502-4923 / www.disciplecc.org

1부예배 오전 7:15 4부 청년예배 오후 1:30 김현요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00 새벽예배 화-금 새벽 6:00
3부예배 오전 11:00 토 새벽 협사비 기도회 새벽 6:00

베델한인교회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1부예배 오전 9:00 P-Kinder(Korean) 오전 11:00 이동준 담임목사
2부예배 오후 9:00 Children(1-6)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9:00 Youth(7-12)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9:00 (점은이예배) 토요한글학교 어프터스쿨

얼바인 아름다운 교회

17702 Cowan, Irvine, CA 92614
T. (949) 250-1111 / www.beautiful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am 새벽예배 5:30 AM (화-금)
11:45 AM Adult Service 6:30 AM (토)
금요모임 : 7:20 PM (성경 66권 별설경공부)

새로운 교회

이세우는 본심치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사랑하고 기쁨하고 온전한 삶(무엇이지 분별하는지)을 살고자 하는 목회자들이 모여온다
1242 9th St., Garden Grove, CA 92844
Mobile: (949) 933-7242
Saerounchurh@gmail.com

1부예배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권혁빈 담당목사
2부예배 오후 9:15 중등부 예배 오후 11:00 고등부 예배 오후 11:30 토요예배 오후 2:00 KM대회 청년부 오후 2:00

얼바인온누리교회

주일예배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 261-9100 / vision.onnuri.org

주일예배 오전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 토 6:00
금요예배 오후 7:30

총성준 담임목사

주일학교 오전 11:00am 새벽기도회 (화-금) 6:00pm
중등부 예배 오후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pm
대학청년부 오후 11:00am 새벽기도회 토 6:00pm

얼바인 한민음교회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949) 769-9628

주일예배 1부 예배 오전 8:15 유년부 초등부 예배 오후 11:30
2부 예배 오후 10:00 어려운 중등부 예배 오후 11:30
3부 예배 오후 11:45 청년부 예배 오후 10:30
영주주예배 오후 10:00 새벽기도회 월-금 5:30pm
토-주일 오후 6:00pm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891-2029, 898-1068 F. 714-373-3092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9:3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8:0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주일 예배 : 오전 9:00am 새벽기도회 : 오후 8:00pm
주일 영어 예배 : 오전 11:00am 새벽기도회 월-금 5:30pm
주일 영어 예배 : 오전 11:00am 토요일 오전 6:00pm

온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부는 교회 세대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 예배 : 오전 9:00am 금요기도회 : 오후 8:00pm
주일 영어 예배 : 오전 11:00am 새벽기도회 월-금 5:30pm
주일 영어 예배 : 오전 11:00am 토요일 오전 6:00pm

토기장이교회

1808 W. Lincoln Ave., Anaheim, CA 92801
T. (714) 324-5328 / www.potterscc.com
E-mail : info@potterscc.com

주님의 빛 교회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 252-9191 / www.lordlight.org

주원재 담임목사

주일 예배 : 오전 11:00am 수요예배 : 오후 8:00pm

하나님의 은혜교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자”
14700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 (213) 247-7440 / godsgracechurch.org

가치있는 선택

Q water

Q water

증류공법으로 탄생한 무한 에너지의
음료 물을 전기분해하거나 고속모터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친환경적임 세포속의
노폐물을 제거하여 피부의 노화를 방지하여
젊음을 유지 나노기포가 1ml당 2억개 이상
용존되어 용존량이 지속적 유지 나노에너지
산소수에 대한 실험 및 분석을 통한 과학적
검증 다양한 분야로 적용 가능하며
타제품과의 융이한 결합성

무한 나노 에너지 산소수

최첨단 나노기술을 이용하여 고유의
물 특성은 그대로 살리고 순수산소의
입자를 일반물보다 수백만배 이상
용해시킨 물입니다.

천연 그대로 살아있는

신선한 물

나노에너지 산소수
Q water는?

APPROVED

FDA

#16975580920

전립선, 당뇨, 아토피, 여드름, 관절염, 통풍에 아주 좋은 효과

▶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면역력 및 면역 조절능력이 2배 이상 증가하여, 질병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높여줍니다.
병원균을 치사율에 가깝게 인공 감염 시 생존율이 2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 검증 하였습니다.

Q water를 체험한 여러 사람들이 Q water의 효능을 인정하고 애용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임상실험을 통해 더욱 많은 체험 사례와 효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 마시기 편합니다.

물이 부드러워, 물 마시기 어려운 환자들도 이 물만은 마실 수 있습니다.
물의 순환작용이 빨라, 마신 후 소변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 생체기능을 맞추어 줍니다.

수일 내에 변비가 없어지고 피로감을 억제하고 피를 맑게 해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약 15년간 당뇨병을 심하게 앓아왔습니다. 지난 몇 년간은 당뇨후유증의 하나로 매일 아침 발바닥이 뜯어 쑤시고 마치 바늘로 마구 찌르는 듯 해서 한동안 걷지도 못하는 Diabetic Nerve Pain으로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Q-Water를 약 1주일 간 마셨더니 놀랍게도 그 발바닥 통증이 거의 사라져서 가뿐히 일어나 걸어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젠 혈당수치 조절도 기대하며 계속 Q-Water를 마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동조

- 미주한인재단 글렌데일 지회장 - 태권도 공인 7단

- 전 월서경찰위원회 회장

- 한인사회에서 범죄피해자 상담(CVA)으로 30년간 봉사

Quality water
나노에너지 산소수

Q water의 필요성

물을 통해 산소를 공급하면 흡수가 빨라 인체에 다량의 산소를 공급합니다. Q water는 3~4일 만에도 몸에 좋은 반응이 나타납니다. Q water를 마시면 맑은 숨 속에서 느낄 수 있듯이 머리가 맑아지고 상쾌해집니다. 명의들의 연구결과 암, 고혈압, 당뇨, 아토피, 임산부, 수험생, 환자들에게 아주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나노에너지 산소수란 일반물보다 산소가 풍부하게 녹아있는 물

최첨단 나노기술을 이용, 고유의 물 특성을 그대로 순수산소(99.9%)를 일반물보다 5~20배 용해시켜 놓은 물로, 용전산소는 인체의 건강과 수명에 커다란 영향이 있다.

산소는 물로 마셔야 효과가 더욱 좋다.

물로 마시는 산소는 호흡하는 것보다 5배 이상의 흡수효과가 있다.

ELIM USA, INC.

1201 S. State College Blvd., Fullerton, CA 92831

www.elimwater.com | www.urimul.co.kr
Tel. 213.235.7360
213.909.4499

디톡스샵 & 대리점
판매원 하실 분
모집니다.

이방인의 충만 수와 온 이스라엘의 구원 (종체적 선교) |

세계 선교의 완수는 '이방인의 충만 수를 위한 선교'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선교'가 병행될 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전 세계 모든 디아스포라 교회들에게 이러한 두 가지 관점의 선교 수행을 제안해 본다. 본 자료는 양태철 목사(GMI(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은혜한인교회) 선교팀장) 제공으로 연재한다. -편집자 주

◆ 들어가는 말

마태복음 24장 14절은 예수께서 주님 재림의 때를 선교의 마무리(주님의 지상명령이 이루어지는 때)로 표현하신 구절로 볼 수 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 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민족에 대한 대표적인 표현으로는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을 들 수 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 구절에 나오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의 숫자는 2015년 중반의 통계에 의하면, 238개국, 16,400 족속, 73억 2천만 명, 6,919 방언으로 볼 수 있다. 선교적인 통계로 보면, 전 세계의 인구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를 전체인구 중에서 20% 미만으로 보고 있으며, 80% 이상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숫자로 보고 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본,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방인의 충만 수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온 이스라엘(유대인)의 구원(돌아옴)이 이루어 질 것을,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8절 사이에 밝혔다. 따라서

이방인의 충만 수와 이스라엘의 구원은 동전의 앞뒤와 같고, 양 날개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바울 당시의 관점인 이방인(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세상 사람들의) 충만 수와 온 이스라엘(유대인)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충만 수,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오직 성부 하나님만이 아시는 구원 받을 자의 수), 주님의 지상명령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러한 이방인의 충만 수를 위한 선교로는 미전도 종족에 해당하는 'World A' 선교와, 비기독교 지역에 해당하는 'World B'와, 기독교 지역에 해당하는 'World C' 중, 아직 구원 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선교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세계 선교의 완수는 '이방인의 충만 수를 위한 선교'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선교'가 병행될 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디아스포라 교회들도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루어 위하여, 반드시 이 두 관점에서의 선교를 병행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전 세계 모든 디아스포라 교회들에게 이러한 두 가지 관점의 선교 수행을 제안하는 것이다.

1. 이방인의 충만 수를 위한 선교

이방인의 충만 수를 이루기 위해서는 2015년 중반의 통계로, 전 세계 약 73억 2천만 명의 인구 가운데, 'World A'의 미전도 종족(약 15억~21억 인구)을 향한 선교, 'World B'의 비기독교 지역의 불신자들(약 27억 8천만 명 인구)을 향한 선교와, 'World C'의 기독교 지역의 인구 약 24억 2천만 명 가운데 명목상 크리스천들(약 10억 이상의 인구)을 향한 선교를 병행해야 한다. 미전도 종족(World A) 인구와 비기독교 지역(World B) 불신자들의 인구 중, 무신론자들과 사신론자들 및 불가지론자들을 제외하면, 회교도가 40%에 이르고 있으며, 힌두교도가 26%, 불교도가 10%, 부족 종교도가 20%, 그리고 기타 4%에 이르고 있다. 즉, 전체 세계 인구 중 아직도 80% 이상이 구원 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방인의 충만 수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기존의 'World C'의 선교(주로 구소련 지역, 라틴 아메리카 지역, 유럽 지역 등에 산재한 명목상의 크리스천들을 향한 선교; 대부분의 정교회 신자, 카톨릭 교회 신자, 성공회 신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일부의 개신교인 등)와, 비기독교 지역인 'World B' 지역의 선교(주로 '10/40 창문지역' 등)와, 미전

도 종족 지역인 'World A' 지역의 선교(주로 '10/40 창문지역' 등)를 병행해야 한다. 특히 전 세계 약 40만 명의 선교사 중 80%가 'World C'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이를 선교사들과 그들의 현지인 제자들의 재헌신('World B'와 'World A' 선교지 사역으로)이 이방인의 충만 수를 이루기 위한 첨경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또한 지금부터 헌신하는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상기 'World A' 지역과 'World B' 지역에서 시역을 감당할 때, 이방인의 충만 수를 이루는 또 다른 첨경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World A'에 속하는 미전도 종족 선교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필자는 러시아 선교사로서 4년 반의 사역 후인 1997년, 미전도 종족선교를 주로 하는 호주의 WEC (World Evangelization for Christ, 1913년 C.T. Studd에 의해 설립된 영국 선교단체, 2,000여 명의 선교사가 80여 개국에서 주로 미전도 종족 사역을 믿음선교 (faith mission) 중) 선교사 훈련대학(WEC MTC, 호주 타즈마니아 섬 랜세스턴 시 위치, 56 에이커)에서 다시 2년간의 선교사 훈련을 받으면서, 미전도 종족선교에 대하여 많은 것을 배우고 훈련받게 되었다(필자의 부부와 딸이 함께).

미전도 종족선교는 전 세계 선교의 약 1/4~1/3(전 세계 인구 약 73억 2천만 명 중, 구원 받지 못한 추정 인구 약 59억 2천만 명 중, 약 15억에서 21억 명이 미전도 종족 인

구, 전 세계 약 16,400 종족 가운데 약 6,500 종족이 미전도 종족)에 해당되는 선교로 볼 수 있으며,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25절~28절에서 언급한 '이방인의 충만 수'와 '온 이스라엘의 구원'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즉,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보았으므로(유대인적인 관점), '이방인 가운데의 구원을 받은 충만 수'가 될 때 온 이스라엘, 즉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 가운데의 구원(현재는 전 세계에 약 1,400만 명의 유대인(전 세계 인구의 약 0.2%)이 있으며, 그 중 약 30만여 명(전 세계 유대인 인구의 약 2.2%)이 구원받은 기독교인으로 추산 됨)이 이루어지게 되며, 선교의 완성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이방인의 충만 수를 이루기 위해서는 미전도 종족선교가 반드시 필요한 선교가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미전도 종족선교는 주님의 지상명령 수행을 위한 전 세계 선교의 진부분집합의 개념 및 전 세계선교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다. (계속)



양태철 목사
GMI(은혜한인교회) 선교팀장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은 어떻게 탄생했을까"

노예 사무엘과 노예선 선장 뉴턴의 이야기 담은 영화 <프리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읊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워싱턴 링컨 기념관 앞에서 "I have a Dream"이라는 연설을 할 때 흑인들이 불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가 석방됐을 때 국민들이 불렀으며, 9월 11일 뉴욕 무역센터 빌딩이 무너졌을 때 미국인들이 눈물로 불렀던, 이 시대 한글인이 가장 사랑하는 찬송가가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Amazing Grace)'이다.

영화는 <노예 12년>에 이어 미국의 노예제도를 주제로 한 작품으로,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건 도주를 감행한 노예 '사무엘'과 노예를 운반하는 배의 선장 '존 뉴턴'의 이야기를 100년의 시간을 교차해 보여 준다.

영화는 1856년 노예 사무엘이 가족과 함께 농장에서 탈출하는 장면

으로 시작된다. 이들은 흑인 노예의 탈출을 돋는 비밀 조직 '지하철도'의 안내를 받아 캐나다로 향한다. 노예 사냥꾼 플리튼의 추적 속에 자유를 향한 사무엘 가족의 숨막히는 여정이 이어진다. 반복되는 위험 가운데 심신이 지친 사무엘은 "흑인을 위한 신은 없다"며 하나님을 원망한다. 그의 어머니는 사무엘에게 증조부에게서 이어지는 '어메이징 그레이스'에 얹힌 비화를 들려 준다.

1748년, 노예를 가득 실은 배의 선장 존 뉴턴. 그는 약혼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기 위해 노예 선을 맡는다. 영화는 이전에 방탕한 생활로 인해 노예생활을 하기도 했던 그가 직접 노예 장사를 하는 모습을 고발한다. 어느 날 폭풍우로 배가 좌초될 위기에 처하고, 그는 하나님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한다. 배는 무사히 노예시장이 있

는 미국 항구에 도착하고, 뉴턴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 노예 장사를 그만두게 된다. 이후 그는 자신의 회심을 담은 찬양을 쓰고, 죽는 날까지 목회자로서 복음을 전한다.

노예 사무엘은 탈출하는 내내 하나님을 부인하고 의심한다. 탈출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여정 내내 자유를 억압하려는 쇠사슬과 죽음의 위협이 물려오고, 노쇠한 그의 어머니는 캐나다 땅을 밟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떠난다. 사무엘은 "결국 자유는 나의 어머니처럼 죽음 이후에나 맛볼 수 있을 것"이라며 절망한다. 하지만 그의 아내와 주위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덕에 이들은 무사히 탈출하고, 사무엘은 결국 회심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사무엘 가족이 자유를 얻는 과정 중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감동적이지만, 이들의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고 도움을 베푸는 '지하철도' 회원들의 희생 또한 감동적이다. 이들의 희생은 노예들을 육체적 자유는 물론, 하나님을 영접하는 '영혼의 자유'로까지 인도한다. 세계적 뮤지컬 배우 출신인 감독 피터 쿠센스는 영화에 아름다운 찬송 9곡을 삽입해 은혜를 더했다. 배우들은 마치 신앙고백을 하듯 열연을 펼친다.

1779년 탄생한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2015년 현재까지도 애송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여전히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 또한 애굽을 탈출

해 가나안으로 향하는 신앙 여정의 고통 가운데서, 마치 침묵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을 향해 "나를 위한 신은 없다"고 절망하기도 한다.

하지만 고통의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더욱 밝히, 그리고 진하게 드러나는 법이다. 고난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향해 끊임 무릎을 거두지 않는다면, 우리도 존 뉴턴과 사무엘처럼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김은애 기자



영화 '프리덤'의 한 장면. ©영화사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 겨울학기 학생모집

본 기독교 복음선교 연합총회에서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와 주 교육국의 승인을 받아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를 진리와 경건이란 학훈을 가지고 설립하고 다음과 같이 2015년 겨울학기 학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부문

1. 신학 대학교 신학과(BA) – 4년 / 126학점

2. 신학 대학원 1) M.Div. 교역학 석사 과정 – 3년 / 96학점

2) M.A. 석사과정 – 2년 / 48학점

3) Th.M. 신학 석사 과정 – 2년 / 48학점

4) D.Min. 목회학 박사과정 – 3년 / 48학점

5) Th.D. 신학박사 과정 – 3년 / 56학점

3. 일반 대학교 1) 선교사 과정 – 2년 / 56학점

2) 평신도 지도자과정 – 1년 / 36학점

3) 평신도 성경학교 – 6개월 / 12학점

4) 채플린 과정 – 소정 과목

5) ESL 과정 – 1년

6) 유치원 교사 및 원장 과정 – 1년

4. 휴스쿨링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정과 교육의 문제의 대안으로 크리스천 휴스쿨링 교육을 전문으로 지원합니다.

크리스천 휴스쿨링은 크리스천 부모들과 자녀들이 함께 영성과 인성과 지성이 통합적으로 균형 잡힌 성장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성경적인 교육 방식입니다.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의 휴스쿨링은 무너진 가정과 교육의 회복을 위해 얇은 본질을 앞세우고 제자도를 실현하기 소망하는 가정들의 결단과 헌신을 격려하며 견고하게 만드는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1학년에서 12학년까지 기독교식 휴스쿨링 방식으로 교육학 박사들과 교사들이 전문 지도합니다.

* 이번 학기 등록 학생들에게는 80% 장학금을 드립니다.

* 기독교 복음 선교 연합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교과 과정 중 50%는 인터넷으로 수업이 가능합니다.

* 본 학교는 분기별(쿼터제)로 학생을 모집합니다.

가을학기 개강일 : 2015년 9월 21일(월) ~ 11월 27일

겨울학기 개강일 : 2015년 12월 07일(월) ~ 2 월 12일

봄학기 개강일 : 2016년 2월 15일(월) ~ 4 월 22일

여름학기 개강일 : 2016년 5월 16일(월) ~ 7 월 22일

겨울학기 등록 안내 : 2015년 12월 7일 까지 등록 마감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College & Seminary in America (CTCS)

1508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213)999-6884(대표전화), (213)272-6031, (213)235-6889

Need color ?

Precise Enhancement
Multi-function Printer

최첨단 고해상도 칼라 디지털 복합기
칼라복사 / 칼라프린트 / 칼라스캔
팩스/네트워크/Mobile Productivity
최고의 인쇄 품질
획기적인 비용절감



Green M. Wild IMAGE SYSTEMS TEL : 213 705 7778

www.GreenMWild.com . GreenMWild@Gmail.com

bizhub C554e/C454e/C364e/C284e/C224e

C554e Colour B&W 55/55 ppm C454e Colour B&W 45/45 ppm C364e Colour B&W 36/36 ppm C284e Colour B&W 28/28 ppm C224e Colour B&W 22/22 ppm Dual Scan ADF 160 ppm Duplex Dual Scan ADF 80 ppm Simplex



Optional : Fax & Finisher

•이슬람 바로 알기

왜 이슬람은 테러하는가

1990년 이후로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테러의 90%는 이슬람으로 인한 것이다. 지난 13일 파리에서 테러로 인해 약 130명이 사망하고, 340여 명이 부상 당했다. 그 중 중상자가 많아,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왜 이슬람은 테러를 일으키 것일까? 먼저 이번 테러가 일어난 프랑스에서의 이슬람 형성 과정과, 이슬람에서 테러가 일어나는 원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프랑스와 이슬람

프랑스의 인구는 약 6천 4백만 명이다. 종교별 분포는 로마가톨릭 83~88%, 개신교 2%, 유대교 1%, 이슬람 10%, 무응답 4%다. 프랑스에는 2,200개의 이슬람 사원이 있으며, 실제로 로마가톨릭과 기독교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이슬람 교인들이 매주 종교적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이번에 테러가 일어난 파리에는 프랑스 전체 무슬림의 38%가 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무슬림이 많아지면서 이슬람 종교는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자리잡게 됐다. 이슬람 자국화를 위하여 가장 많은 예산을 사용하여 통합을 추진했던 프랑스에서, 젊은 무슬림들은 자신이 프랑스 인이기에 앞서 무슬림이라고 생각한다. '무엇이 자신을 특징짓는 요소인가?'라는 질문에 무슬림 학생들 중 3분의 1은 종교라고, 5%만이 프랑스라고 답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프랑스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이 필요했다. 1945년 3월 3일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었던 프랑스의 '샤를르 드 골'(Charles de Gaulle)은 연설에서 "프랑스의 경제 회복에 주요 장애물은 노동력"이라고 한탄했다. 당시에 약 150만 명의 노동력이 필요하다고 집계됐고, 이를 보강하기 위해 북부아프리카인 무슬림들이 이주하기 시작했다.

프랑스에는 1973년까지 약 1백만 명의 북부아프리카 무슬림과 그 후손들이 살았으나, 현재 무슬림 인구는 6백 40만 명이다. 그리고 25세 이하의 프랑스 인구 중 4분의 1은 무슬림이다. 무슬림들이 프랑스에 해를 끼쳤던 것만은 아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약 10만 명의 무슬림들이 프랑스를 위해 싸웠다. 또한 프랑스 경제는 노동 이민자들에 의하여 1970년 중반까지 번영을 누렸다. 그러나 무슬림들은 프랑스에서 그 사회의 하층민으로만 살아 왔다. 프랑스인의 생활을 따라가지 못하던 그들은 어느 한 지역을 중심으로 계토(Ghetto)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세대가 이어지면서 그들 계토 안에서

프랑스인들에 대한 불신과 증오를 키워갔다.

2. 이슬람과 지하드

아랍어-영어 사전에 따르면 '지하드'는 '자아드(jaahad, 스스로 노력하다, 애쓰다)'라는 동사의 동명사(masdar)이고, 그 뜻은 '애씀, 노력, 또는 불만, 불찬성 및 비난의 대상에 대하여 투쟁하는 데 자신의 힘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이슬람 연감에는 지하드를 "싸우다"로 정의한다. 이것은 전쟁 뿐 아니라 개인 또는 공동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다른 형태의 전투를 포함하는 꾸란의 개념으로서, 무슬림들의 안전을 추구하고 이슬람의 가르침을 실천한다는 의미로 확대됐다.

이슬람에서 지하드는 단 두 가지 상황에서만 허용된다고 한다. 첫째는 방어할 때다. 지하드는 공격적인 전쟁이 아니라 방어적인 전쟁이다. 무슬림들은 공격을 받았을 때, 또는 그들의 자유, 평화, 정의를 훼손당했을 때 싸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역사 연구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무슬림은 수많은 침략 전쟁에 참여했고, 그 결과 영토와 부를 얻었기 때문이다.

둘째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이다. 롤란드 아모어(Roland Armour)에 의하면, 7세기 이슬람의 팽창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지하드의 한 예다. 중동과 북아프리



유 해 석 선교사

FIM국제선교회 대표

마지막 심판의 날에 알 수 있는 것이다. "일러 가로되 알라께서 명령한 것 외에 우리에게 아무것도 있을 수 없나니 그분은 우리의 보호자이자 믿는 사람들이 의지하는 분이시라"(꾸란 9:51)

둘째, 선행을 많이 하는 것이 천국에 가는 데 도움이 된다. 대부분의 일반적인 무슬림들은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쓴다. 그 이유는 착한 일을 많이 할 때 천국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무슬림들은 "착한 일을 기록하는 천사와 악한 일을 기록하는 천사가 항상 있기에 모든 행동을 기록해, 마지막 심판 날에 착한 일과 악한 일을 저울에 달아 그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믿고 있다. 착한 일을 하는 것은 천국 가는 데 큰 역할을 한다. "그때 그의 선행이 많았던 자들은 번성할 것이며 그의 저울이 가벼운 자들은 그들의 영혼을 잃고 지옥에서 영생하며"(꾸란 23:102-103)

셋째, 메카로 성지순례를 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가능성에 관해서는 무함마드의 언행록인 하디스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다. 지난 9월 이슬람의 성지순례 기간 중에 메카에서 크레이인이 무너져서 100명 이상이 죽고, 천수백 명이 암사한 일이 있었다. 그때 러시아 이슬람 자치공화국의 정부 수장인 람잔 카디로프가 방송에서 "사우디아리비아에서 발생한 대형 암사 사고는 알라의 선물"이라고 말하였다.

그 이유는 "성지순례를 떠나는 무슬림들은 바로 그곳에서 죽고 싶어 하기 때문에, (성지순례 도중 암사당한 것은) 알라의 선물이며 우리는 그들을 부려워한다"고 하였다. 그 이유가 꾸란에 있다. "그곳에는 예증으로서 아브라함의 발자국이 있나니 그곳에 들어간 자는 누구든 안전할 것이며"(꾸란 3:97) 따라서 이슬람에서는 성지순례 중에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넷째, 알라와 이슬람을 위한 전쟁, 즉 지하드에 참전했다가 "순교"할 경우다. 꾸란의 많은 구절이 이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로 하여금 알라의 길에서 성전케 하여 내

세를 위하여 현세의 생명을 바치도록 하라. 알라의 길에서 성전하는 자가 살해를 당하건 승리를 거두건 알라는 그에게 크나큰 보상을 주리라"(꾸란 4:74), "알라의 길에서 순교한 자가 죽었다고 생각지 말라 그들은 알라의 양식을 먹으며 알라의 곁에 살아 있노라"(꾸란 3:169) 이처럼 이슬람의 알리는 알라와 이슬람을 위하여 싸우는 이들에게는 커다란 보상을 준다.

꾸란에 따르면 순교하는 것은 알라에게 가장 큰 영광이 된다. 순교를 뜻하는 헬라어가 마르투리온(marturion)인데, 그 어원은 '증인'이라는 뜻의 '마르투스'(martus)다. 이슬람에서도 증인에 해당되는 단어가 샤히드(shahid)이며, 순교(martyrdom)란 말도 무슬림의 믿음의 고백(shahada, 샤히드)에서 나왔다. 그 고백은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으며, 무함마드는 알라의 선지자이다"라는 것이다. 무슬림들이 지하드를 할 때에 그 주된 동기는 "지하드에서 죽은 사람, 즉 샤히드라 불리는 사람은 곧바로 천국으로 간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디스에 의하면 알라를 위하여 지하드를 하다가 순교한 사람은 6 가지 상을 받는다고 한다. 첫째, 순교자는 피를 흘리자마자 죄 사함을 받고, 둘째, 지옥의 징계를 면제받고 천국에 거하게 되며, 셋째, 더 큰 테러에서 보호를 받으며, 넷째, 세상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합한 것보다 더 좋은 흥옥(Ruby) 왕관을 머리에 쓰게 될 것이며, 다섯째, 72명의 처녀들과 결혼하게 될 것이며, 여섯째, 친척들 70명의 중보자 자격을 갖게 된다.

그렇다면 꾸란에 묘사된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 술과 젖과 꿀이 흐르는 정원에서 섬세한 비단옷을 입고, 금으로 장식된 침대에 기대어, 마음껏 과일을 먹으며, 소년들이 따라 주는 술을 마시고, 취하지 않는다. 알라가 천국에 오는 자들을 위하여 준비해 놓은, 같은 나이의 새로운 배우자들과 어울린다. 천국에서 기

다리고 있는 배우자에 대하여 꾸란은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에덴의 천국이 바로 그들을 위해 문을 열어 놓고 있나니 그들은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며 풍성한 과일과 달콤한 음료수를 청하매 같은 나이의 눈을 내리감은 순결한 여성들이 그들 옆에서 시중을 들더라. 그와 같은 계산의 날을 위해 천국은 너희에게 약속된 것이라"(꾸란 38:50-53), "눈이 크고 아름다운 배우자가 있으며 잘 보호된 진주와 같다"(꾸란 56:22-23), "그리고 은혜를 베풀고 그리고 아름답고 눈이 큰 배우자를 결합시켜 주니"(꾸란 44:54), "그 안에는 눈을 내리감은, 어떤 인간도 진도 접촉하지 못한 배우자가 있나니"(꾸란 47:56), "눈을 내리감은 배우자가 정자에 있나니"(꾸란 55:72).

뉴욕 9.11테러에 참여해 비행기를 납치하고 자폭한 대원 가운데 이집트인 아타(Atta)의 유품인 약 5 페이지의 메모에는, 어떻게 비행기를 납치하고 자폭할 것인지를 요약해 놓은 상부의 지시와 자신의 기도문이 적혀 있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침착해라. 침착해라. 누구나 다 죽는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를 곤장 낙원으로 인도할 것이다... 알라는 위대하시도다. 알라여! 나의 죽음을 통하여 당신의 영광이 이 땅에 편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이 행위를 통하여 나를 영접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이슬람 전사로서 테러를 하면서 성스러운 전쟁에 참여한 자신을 알라가 받아 주기를 바랄 때이다. 이슬람이 성장할수록 테러의 위험은 높아만 간다.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테러에 대하여 앤드류 크로스(Andrew Cross)는 타임즈에 다음과 같이 기고했다.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테러를 자행하는 것은 가난이나 절망이 원인이 아니다. 그들이 의도하는 것은 자기 땅을 지배하는 것도 아니다. 왜곡된 이슬람 사상이 주된 동기이며, 지하드에 참전한 자에게 하늘이 보상한다는 사상 때문이다."



이슬람 사원에서 이맘의 지도를 받는 무슬림 청년들. ©FIM국제선교회 제공

Sales • Rental • Service • Free Estimate • Supplies

최저 1¢
1장

복사기판매!
렌탈!서비스!

FMB RENT PROGRAM

- SERVICE는 물론 TONER, DRUM ROLLER등 모든 PAR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SERVICE를 실시합니다.
- 4시간내 A/S를 신속 처리

복사기 무료



칼라
카피



FBM First Business Machines, Inc
전화문의 (800)582-3321 / (562)802-9044

Fax : (562)802-8094

www.fbmcoipers.com

13245 E. Rosecrans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기/독/일/보와 함께하는

복새통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잠언 8:10)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 추천

그때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는 하나님

드보라 김 | 나침반 | 224쪽

40대에 미국으로 이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저자의 하나님 사랑 고백. 저자는 그 분 안에서의 모든 어려움은 이유가 있고, 그 어려움에서 회복시키심을 믿으며 많은 어려움을 이겨냈다고 한다. 이를 통해 깨달은 것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그 어려움을 견디며 자신이 변화되었다는 것이다. 저자는 하나님 마음을 진심으로 품을 수 있는 현재가 행복하다고 고백한다.



말 VS 행위

듀웨인 리트핀 | 아가페북스 | 256쪽

그리스도인의 소명에 있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인 '말과 행위'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모색하고, 둘의 적절한 성경적 균형을 추구함으로써 옳은 균형을 이루기 위한 기준을 재정립하고 있다. 저자는 포스트모던 시대에 강조되는 '행위'가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복음을 본래 언어적이며,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언어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터미네이터 라인 덫

권여원 | 예영 | 256쪽

첫 작품 <23:59>에 이은 두 번째 소설. '성경 예언대로 어느 날 문득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사라진다면 얼마나 황망하겠는가?'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성장

최은영 | 두란노 | 224쪽

두 아들을 둔 엄마인 저자는 자녀들이 얼마나 자신의 사랑과 돌봄을 필요로 하는지 외면한 채, '상담학계의 1등'이 되기 위해 밤낮없이 달렸다고 한다. 그러나 큰아들의 심한 방황과 아버지의 병상 신앙고백을 통해 부모로서, 신앙인으로서 혼주소를 직면하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왔다. 자신의 경험에 토대가 됐기 때문에, 여느 상담서적과 달리 해법이 아주 실제적이다.



REVIEW

구입문의

LA : 조이기독교백화점 T. (213)380-8793

OC : 생명의 말씀사 T. (714)530-2211

“헨리 나우웬과 아씨시 프란치스코 입문서”

상처 입은 치유자, 기쁨에 찬 가난에 대하여

토머스 머튼, <디트리히 본회피> 등 주요 인물들의 입문서들을 펴내고 있는 출판사 비아(VIA)가, <헨리 나우웬>과 <아씨시 프란치스코>를 잇따라 펴냈다.

'상처받은 인간,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부제의 <헨리 나우웬>은 20세기 대표적 영성가이자 작가인 헨리 나우웬에 대해 '상처 입은 인간', '상처 입은 그리스도', '상처 입은 치유자' 등 3가지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이후에는 그의 사목 활동에 대해 비판적 시각으로 검토한다.

헨리 나우웬이 세상을 떠난 지 3년 후에야 그의 저작들을 처음 읽기 시작했다는, 영국의 침례교 목회자인 저자는 "네덜란드 출신의 동성

애자이자 로마가톨릭 사제가 쓴 책들을 처음 보았을 때 은사주의자인 나는 적잖이 냉소했지만, 이후 놀랍게도 그가 예수를 열렬히 사랑했음을 알았다"며 "나우웬은 내가 수년간 묻어두려 했던 불안이라는 상처를 그와 함께 돌아볼 것을 종용했다"고 말한다.

저자는 나우웬의 삶을 조명하면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우리는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다른 이를 위해 '존재한다'"며 "치유자로서 우리가 제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뭐라고 말해야, 혹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이 야기를 수용할 수 있는 내면의 공간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이다"고



헨리 나우웬
위리엄 러들
비아 | 112쪽

말하고 있다.

<아씨시 프란치스코>(사이먼 콕 세지 저, 비아 124쪽)의 부제는 '기쁨에 찬 가난, 기도로 빛어낸 기쁨'

이다. 현 교황이 '선택'한 이름이기도 한 프란치스코에 대해, 영국성공회 사제이자 프란치스코수도회에 속한 저자는 프란치스코의 기도와 행동에 주목하면서 그의 삶을 살피며, '성인'의 체험을 바탕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삶에 도전을 던지고자 한다. 이후에는 프란치스코의 모범을 따라 살아가는 현대적인 시도들을 소개한다. 여기서는 빈민·노숙 생활이나 자연과의 대화, 무슬림 전도 등 자칫 현대와 맞지 않는 인물로 비칠 수 있는 프란치스코의 삶을 창조적으로 계승하는 모습들을 만날 수 있다.

저자는 "프란치스칸(프란치스코 회 일원과 성 프란치스코의 수도 규

칙을 따르는 이들을 총칭하는 말)에 대한 행동이란 한센병 환자들을 간호하는 일이나 에이즈 환자들을 돌보는 일, 환경을 돌보는 일 등 실천적인 것으로 대개 불결하거나 고된 일이 많다"며 "어떠한 실천의 자리로 부름을 받은, 이 모든 일은 기도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그저 무모한 자선행위가 될지 모른다. 기도는 성스러운 노력과 세속적인 노력을 구분하는 기준"이라고 전한다.

이 출판사에서 냈던 이전의 입문서들이 그려했듯, 이 두 권의 책들도 각 인물의 저자들과 2차 저작들인 '함께 읽어 볼 만한 책'을 제시함으로써 더 깊은 연구로 독자들을 안내하고 있다.

이대웅 기자

감사의 계절 선물권 대매출

한올한울 장인의 혼을 담은 맞춤 양복, 고객의 마음까지 담은 맞춤 양복, AS는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Gold Finger Tailor

직접 재단/직접 재봉
맞춤 정장/명품 옷수선

T: (213)386.5858

975 S. Vermont Ave #102, LA, CA 90006



김병호
Master Tailor

쿠폰지자 한 할
20% DC
Coupon

“날 향한 그분의 뜻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라면”

美 월스트리트 시각장애인 애널리스트 신순규 씨의 ‘신앙고백’

“내가 마음을 다스리는 데 가장 큰 힘이 된 것은 역시 신앙이었다. 서울맹학교를 다닐 때 갖게 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비롯된 신앙생활은 나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주었다.”

최근 자전 에세이 <눈 감으면 보이는 것들(관미동)>을 펴낸 신순규 씨는 시각장애인으로서는 세계 최초로 공인재무분석사(CFA)를 취득한 ‘애널리스트(analyst·국내외 주식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을 분석·예측하여 투자전략을 수립하는 사람)’이다.

9세 때 시력을 잃은 후 15세 때 피아니스트가 되기 위해 훌륭한 미국 유학을 떠난 그는 의사와 경영학자, 애널리스트까지 진로를 여려 차례 변경했고, 하버드와 MIT 졸업 후 JP모건을 거쳐 세계의 금융 중심지인 미국 뉴욕 월스트리트에 위치한 미국 내 프라이빗 뱅크 중 가장 큰 규모의 브라운 브라더스 해리먼에서 21년째 일하고 있다.

책은 저자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본다는 것’, ‘꿈’, ‘가족’, ‘일’, ‘나눔’ 다섯 가지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있다.

첫 번째 ‘본다는 것’에서는 겉만 보면 안 되고, 마음으로도 볼 수 있으며, 편견에 눈이 가려져서도 안 되고, 덜 보아야 ‘소음’에서 ‘신호’를 구별해낼 수 있음을 담담한 필체로 적어 내려고 있다.

특히, 고난과 역경을 힘겹게 헤쳐나가는 ‘임지전적 이야기’를 펼칠 것으로 예상했지만, 저자는 이런 류(類)의 도서들이 가는 ‘쉬운 길’ 대신 ‘다른 길’을 선택했다.

늘 온갖 것들을 보고 사느라 우리가 놓치고 사는 부분들을 되새겨 주고 있는 것이다.

책 발간 후 방한한 신 씨는 기자 간담회를 통해 “주어진 환경과 거기서 겪는 경험이 남달랐기 때문에, 남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으로서 에세이를 쓰고 싶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책에서도 “모든 것을 지나치게 나관적으로만 본다는 말을 수없이 들어왔다”며 “심지어 내가 시력을 잃은 시기도 적절하다고 생각될 정도”라고 했다.

책에는 다소 생략된, 인생 곳곳에 ‘신앙’이 끼친 영향에 대해선 “하나님의 인도와 시기가 제 계획이나 소망보다 더 완벽하다는 것을 계속 경험하다 보니, 정말 삶에 대한 작은 것부터 아주 큰 일까지 주님께 맡기는 것이 버릇이 되어 버렸다”고 말했다.

“실명한 시기, 피아노 레슨을 강



눈 감으면 보이는 것들
신순규
관미동 | 228쪽

요받은 것, 유학까지 연결된 일들, 영어나 문화 적응에 도움이 되었던 서울맹학교에서의 1년, 더 큰 세상으로 가기 위한 준비와 훈련을 할 수 있었던 (미국) 일반 고등학교에서의 4년, 영주권과 명문대학의 관련성 등등… 제 마음대로 제가 원하는 시기에 무엇 무엇이 되지 않는다고 불평했던 것들이 모두 더 좋은 일로 돌변하는 현실을 살다 보면, 누구나 이런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했다.

그에게 있어서 ‘신앙’이란 ‘빼놓기 힘든 핵심적인 그것’이 아니라, 삶의 근본이자 목적이 ‘저와 하나님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이들도 그렇지만, 제 존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그분의 목적에 따라 일어난 일이므로, 과연 (오늘, 이번 주, 올해, 평생)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그 목적을 향해 하루 하루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제가 살 수 있는 최고의 삶이라고 믿습니다”이다.

저자는 “이런 삶에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목적, 즉 무엇 무엇이 된다거나 무슨 일을 해내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사는가, 즉 삶의 방법이나 과정 등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더 많다”고 덧붙였다.

책에서 저자는 “쏟아지는 정보를 가려 보는 일은 나에게 아주 중요하다. 찾아서 읽을 수 있는 정보는 그리 제한되어 있지 않지만, 스크린에 나오는 정보를 한눈에 다 보는 사람들보다는 아무래도 정보를 흡수하는 속도가 더디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정보만을 읽고 검토하는 능력을 쌓아야 했다”고 말한다.

정보도 정보지만, 수백만 달러를 움직여야 하는 과정에서 ‘불안이나 공포’는 없을까. 저자는 “고객의 자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임무를 우선으로 알고 있는 우리들은, 액수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100

만 달러나 1억 달러나 똑같이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가치를 더해 주어야 하니까요”라고 말한다.

또 이런 일을 오래 하다 보면 돈의 액수가 그저 스포츠의 점수 같은 것이 된다고도 했다. “절대 내어 주면(돈을 잃으면) 안 되고, 꼭 점수를 더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마지막으로 액수는 아주 크지만 우리가 직접 현찰을 만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분석에 자신을 갖기 때문에, 일상적인 일에 대한 걱정 외에는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일하지 않습니다.”

신순규 씨는 책 마지막 부분에서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줬던 세 권의 책을 소개한다. “사람에게서 듣기 어려운 것을 알고자 할 때, 나는 자주 책에서 답을 찾았다. 어떻게 해야 올바른 신앙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으며 예수님이 은혜와 자비로 다른 이들을 대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었던 나는, 이와 관련된 책들을 읽기 시작했다.”

그가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책은 멀린 캐로더스 목사의 <감옥생활에서 찬송생활로(Prison to praise)>, 리처드 포스터 작가의 <영적 훈련과 성장(Celebration of Discipline)>, 그리고 필립 앤시 작가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What's So Amazing about Grace?)>이다.

그는 한국 크리스천 젊은이들에게 추천할 만한 신앙도서로 필립 앤시의 책 ‘Philip Yancey’s Soul survivor(한국 제목 그들이 나를 살렸네)’를 권하고 있기도 하다. “교회 때문에 상처받은 이들을 위해 쓴 이 책은, 신앙 덕분에 남다르게 살았던 13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이 세상을 남다르게 살아야 하는 우리들에게 가이드와 같은 역할을 해 줍니다. 적어도 제게는 그랬습니다”라며 추천 이유를 설명했다.

이대웅 기자



저자 신순규

“빛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

故 탈북증인의 생생한 북한 복음 이야기



빛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
박상원 편저
렛츠북 | 207쪽

이번에 출간된 수기는 그가 처음 작성한 일기문 형식의 수기로 그의 출생 이후부터 유소년기의 성장과 정을 포함, 가족사가 잘 나타나 있고 군대 제대 후, 급변한 사회현실과 사랑하는 아내와의 만남과 이별 등 인간사가 잘 묘사되어 있다.

특히, 운동실력이 남달랐던 주인공은 특전부대 출신으로 후방 교란 전술, 요인 암살, 심리전 등 여러 전술들을 모두 섭렵하며 14년간 군 복무를 하다 제대했다. 이때 겪었던 고강도의 훈련 경험과 기술은 향후 그가 북한 내에서의 활동이 노출되어 중국으로 탈북하기 전까지 북한 내에서 별인 기독교적 반 공산주의 사회운동에 탁월한 리더쉽으로 활용되었다.

이 책이 더욱 주목되는 이유는 그의 증조할아버지가 이미 평양에 온 초대 미국인 선교사들과 함께 평양에 교회를 세워 목회를 했고 평양 숭실학교에서 목회자를 배출하는 교육자이기도 했다는 것이다. 그의 증조할아버지는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어 3.1독립운동의 한 일원으로 활동하다 순교했다. 이 믿음의 계보는 신실한 할아버지대와 결국은 목회자가 된 큰 아버지대로 이어졌다.

현재 박 목사는 고 김경철의 삶을 통해 북한의 실상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보는’ 북한선교를 위한 영화 제작을 추진하고 있다. 이 책의 수익금도 영화제작에 사용될 예정이다.

*후원문의: 425-775-7477

*홈페이지: gideonbrothers.org

이영인 기자



편저자 박상원 목사.

북한간부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와 순교한 스토리

- 우리들의 회개와 동족들의 마음을 얻어 통일의 꿈을 줄 두 권의 책 -



- 구입: 미주두란노와 기드온동족선교회 (\$20/권당)
- 문의: (425) 775-7477, www.gideonbrothers.org
- 주소: GBMW (체크오더명과 우편수취명 동일)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헤어칼라전문점

マイスタイルリスト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칼라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 칼라
\$30 up
\$10 up
단, 칼라만 하시면 \$30.00

매직스트레이트
\$100 up
리얼리

프로페셔널 웨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칼라는 마이스타일 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웨라 제품으로 칼라한 실제 사진들입니다.

PROFESSIONAL
WELLA
SEBASTIAN



앞서가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 stylist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Tel: 213-739-1022

영업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 까지 9:00 AM ~ 8:00 PM





Americans of various ethnic groups gathered at the "Heal Our Land" prayer gathering that took place at the Anaheim Convention Center on Sunday.

Southern California Americans Gather to Pray for Restoration and Revival in the Country

BY RACHAEL LEE

"We are the church! We are America! Save us! Change us!"

Such were the prayers of those who gathered to pray for America at the Anaheim Convention Center on Sunday night. The gathering, called "Heal Our Land," was primarily spearheaded by Korean church leaders of Southern California, but was led and attended by individuals of various ethnic groups, including Caucasian, African American, Latino, and Middle Eastern Christians. Organizers say that some 3,500 attended the gathering.

"America needs a radical, massive operation on one of its founding principles -- its humble faith," said Dr. John C. Kim, founder of the Jesus Awakening Movement for America (JAMA).

"If we don't, we don't have a future. And if America fails, the world will fail. But Jesus never fails," Kim continued. "And our God is merciful and gracious. Let us pray and ask God, 'Pour out your grace that we would turn and

repent before you.'"

"Let there be no more division, no more pointing fingers," said director of The Call Lou Engle, one of three speakers who spoke brief messages. "Unity is the heartbeat of God -- let us bless one another of all races and of all denominations ... This is the hour in which America will experience yet another revival."

The four-hour prayer meeting which began at 4:30 PM covered various topics related to spiritual restoration in the U.S., such as personal and corporate repentance; the church; families and marriage; schools; culture; leaders in all levels of government; social issues including human trafficking, homelessness, and racism; and world missions.

Some two dozen speakers briefly preached or introduced a specific prayer topic, most of whom were Korean and about a sixth of whom were of other ethnic groups. Many prayer topics were led in Korean and translated into English, and one topic (on world missions) was led in Chinese, which was also

translated into English.

Though the various prayer topics were regarding different aspects of American society, most speakers included prayers of repentance, and petitions for revival in all of their specific areas -- repentance for turning away from God and his standards in the family, church, school, media, government, and society, and petitions for revival and restoration in each of those areas.

Racial reconciliation, terrorism attacks, and the Supreme Court's ruling on same-sex marriage were brought up as well, and a time to pray for elected officials was set aside towards the latter half of the event.

Assemblywoman Young Kim (65th District), Mayor Steven Choi of Irvine, La Palma City Councilmember Steve Hwangbo, Mayor Scott Voights of Lake Forest, and ABC Unified School District Board Member Soo Yoo expressed gratitude for the prayers of those gathered.

"It is through your prayers that we are here today, and we ask that

you'd continue to pray for us, that we would be wise, and that we would be in our respective positions without compromising God's standards," said Mayor Voights.

This prayer gathering was hosted by the Korean Christian Council in America, Jesus Awakening Movement for America, and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in Orange County -- three of the most active organizations in the Korean immigrant church context of Southern California.

"Heal Our Land" comes after two gatherings of "A Line in the Sand," which were all-day prayer events organized not by Korean church leaders but by David Andrade and Michael Petro, who joined hands with the Korean church leaders to organize "Heal Our Land" this year.

Leaders of the National Day of Prayer (NDOP), which takes place on the first Thursday of May each year, were also featured, with a video welcome by Shirley Dobson, the chair of the NDOP Taskforce, and a prayer led by director of public relations Rev. Dion Elmore.

Missionaries' Kids Invest in Future of Younger MKs

mKommit launches scholarship project; sets fundraising goal of \$12,000

BY RACHAEL LEE

Missionaries' kids are raising funds again this year in hopes to help provide the needs of younger missionaries' kids as they prepare for college and their future careers.

This group of missionaries' kids, also known colloquially as "MK's, are a part of mKommit, a group which has been providing mentorship and scholarships since 2013 to help younger MKs with emotional and financial needs as they attend college in the U.S. Members of mKommit are now young adults working in education, medicine, and other professional fields.

Members of mKommit met while they were in college through a ministry called mKainos, which hosts yearly retreats for MK college students. These retreats provide a space in which MKs studying in the U.S. could understand their identities, and share their experiences with fellow MKs. mKommit members said that the network and support they've received during their years in college was influential to their growth as individuals in the midst of unique challenges that they faced as MKs, including cultural differences and financial difficulties.

"Having been in their shoes, we understand the journey of an MK can be overbearing with various challenges accompanied with loneliness," mKommit members said. "Nonetheless, our firm belief and trust in God's providence has gotten us through those inevitable humbling seasons, experiencing God's provisions through unexpected support and encouragement from those around us."

mKommit stated that through the mentorship and the scholarship funds, they want "to reach out and support ... younger MK siblings who have left their mission field and family to study in the U.S."

"Our ultimate goal is to give back what we have received as MKs, which were all the prayer and support from members of the church all around the world," the group added. "If we continue with the same heart and goal and walk every step following God's prompting, we believe that God will work mightily through us. The opportunity to share this heart and show God's love to the younger MKs is none other than now."

During the first year of the scholarship project, 15 MK students from 12 different countries were awarded scholarships. The number of awardees grew to 19 students in 2014. This year, mKommit has set a goal to raise \$12,000, and scholarship recipients will be awarded at the mKainos winter retreat this year being held from December 28 to 31 in Malibu, CA.

This year's application process for the scholarship has two parts. Applicants must submit a video testimony of their experiences living in and attending university in the U.S., and a letter written to their parents overseas "sharing their thoughts and feelings they never had the opportunity to fully express to them previously."

Contributions can be made at www.youcaring.com/2015mkommit, or by mail to P.O. Box 75459, Los Angeles, CA 90075. Checks should be made payable to "Global Partners" with "MK Scholarship" on the memo line. Tax deductible letters can be made available upon request.



Graduates of Love 153's sewing class celebrated with a ceremony. Joyce Jung, the executive director of Love 153, joins with them for a photo standing third from the right.

school, an Arab widow center in Nazareth, and Jerusalem Hill center, a refuge for severely abused children. Learning how to sew allows students to start their own alteration businesses, Jung said.

Other than sewing classes, Love 153 also offers taekwondo classes for children and youth in three locations, some of which were already offering taekwondo classes but did not have proper uniforms due to a shortage in finances.

Love 153 was able to provide new uniforms as well as classes taught by an 8-degree black belt taekwondo coach from South Korea.

Love 153 staff also make visits to Holocaust survivors, and offer "Holy Land tours" to Jerusalem for 50 shekels (approximately 12 US dollars) for those who have wanted to visit the city but could not afford the trip.

Such services have opened the minds of many of those in the community, who previously may have had negative perceptions about Christians, Jung said. She talked of a rabbi who invited her to his synagogue, and introduced her to the congregation.

"He introduced me by saying,

"This is Joyce, and she's helping us. And by the way, she's Christian," Jung recalled. "He talked about the services that our organization has been offering. And afterwards, the woman who was sitting next to me thanked me right away, and even men thanked me afterwards when we made eye contact. They are thanking me, a Christian, for being there."

"Every day, people come up to me and say they didn't know that much about Christians, and now they're thinking more openly about them," she added. "This huge wall is breaking down day by day."

Jung said she hopes to continue expanding Love 153's programs, and encouraged local churches who have been interested in visiting Israel to visit Love 153's center and participate in its programs.

"It's a miracle, what God is doing here," Jung said. "I highly encourage and invite churches to come and visit Israel, and interact with the people and understand who they are. And through their life and presence, they can show God's love."

For more information, visit www.love153.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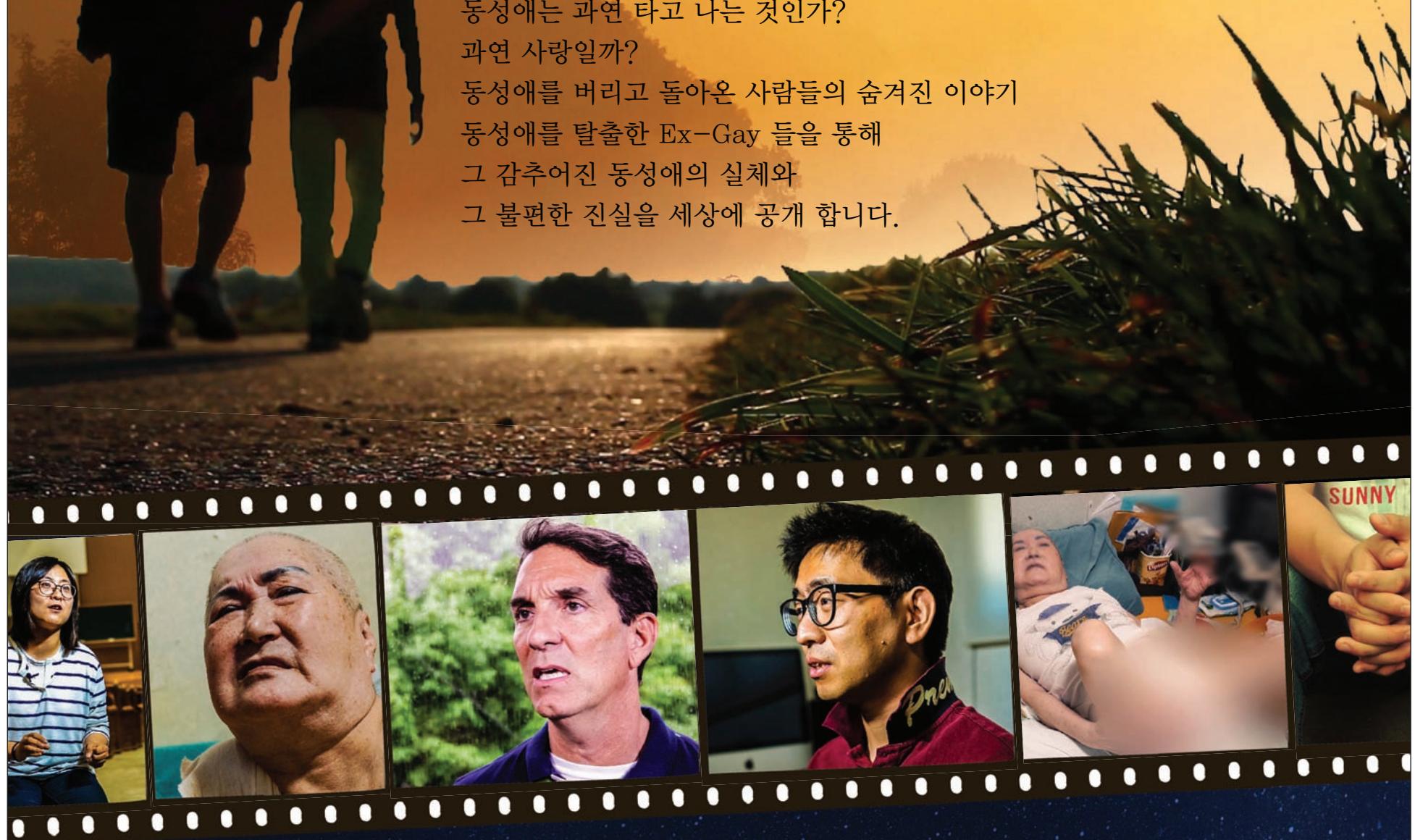
Love 153 offers sewing classes in six different locations in Israel. Students are able to start alteration businesses with the skills they learn through the classes.

당신의 생각을 뒤집는 충격 다큐영화

나는 더 이상 게이가 아닙니다

I am No Longer Gay

동성애는 과연 타고 나는 것인가?
과연 사랑일까?
동성애를 버리고 돌아온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
동성애를 탈출한 Ex-Gay 들을 통해
그 감추어진 동성애의 실체와
그 불편한 진실을 세상에 공개 합니다.



미주 순회 시사회 일정 (영어자막제공)

12월 8일 (화) 7:30PM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el: 213-749-4500

12월 10일 (목) 8:00PM

선한목자교회 (고태형 목사)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el: 909-591-6500

12월 11일 (금) 7:50PM

주님세운교회 (박성규 목사)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el: 310-325-4020

12월 13일 (주일) 10:00AM

UBM교회 (앤드류김 목사)

1531 S. 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4-8360

상영 문의: 노엘 흥 전도사 714-501-1337 (UBM 교회)

영화 상영 후 관객과의 만남

진행: 김광진 감독 '나는 더이상 게이가 아닙니다' 연출

염안섭 원장 수동연세요양병원

에이즈 환자 치료전문

한국교회 동성애 대책위원회 홍보대사